



성가소비녀회(聖家小婢女會, Little Servants of the Holy Family)

성가소비녀회 마크는 예수-마리아-요셉을 상징한다.
첫째 기둥 J는 예수(JESUS), 가운데 M은 성모 마리아(MARIA)
둘째 기둥 J는 요셉(JOSEPH)을 형상화한 것이며, 원은 수도 공동체를 뜻한다.
하느님의 종들로서 구원사업을 이룩하기 위한 공동체적 생활을 하신
예수-마리아-요셉을 본받는 소비녀(小婢女, 작은 여종)들의 삶을 의미한다.

통합생태적
대전환의 삶을 사는

소비녀

통합생태적
대전환의 삶을 사는

소비녀



친환경이어라! 부서지고 상처 난 내 백성을

- 통합생태적 삶은 소비녀 한 사람 한 사람의 회심이라는 내적인 대전환에서 시작합니다.
- 통합생태적 삶은 더디게 가더라도 함께 걸으며, 저마다의 고유함과 다양성을 선물로 여기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공동합의성으로 살아 숨 쉬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 통합생태적 삶의 대전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초대하는 새로운 부르심 운동으로, 인류 공동체가 함께 생명의 그물망을 짜는 우주적 대전환입니다.

공동합의성으로 살아 숨 쉬는 새로운 공동체..

- 005 총회선언문
- 012 생명의 네트워크를 이룬다_ 총장수녀님, 총평의원 수녀님 인터뷰
- 020 의정부관구총회, 관구지역모임
- 024 인천관구총회, 관구연수

하느님의 희망이 작은 씨앗이 되는 전적인 봉헌..

- 029 작은 자의 하느님_ 최지현 바오로 소비녀
- 038 생명의 큰 품으로 다시 연결되기_ 이나경 사도요한 소비녀

인류공동체가 함께 생명의 그물망을 짜는..

- 047 변하는 것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일관됨의 시간_ 제기동 프란치스코의 집
- 060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상_ 녹색연합 기후행동팀 팀장 박수홍
- 070 선한 영향력과 선한 의지가 모이는 장_ 하상바오로의 집, 소비녀 밥꽃

내적인 대전환..

- 073 생활글과 농부 소비녀_ 김선미 니코데모 소비녀
- 086 성가소비녀회 한 지체로 파견되었음을_ 전영은 미리암 소비녀
- 092 내 마음은 주님의 작은 정원_ 백수연 소피아 소비녀
- 098 나와 너는 서로의 다양성을 품으며_ 박해원 루디빈 소비녀

하느님의 연민을 나의 연민으로..

- 103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_ 생태적인 삶의 방식? 본래 창조된 모습으로의 회복_ 홍 파라 소비녀
- 108 어둠 속에 감추어진 빛을 드러내어라_ 최 윤택 소비녀
- 112 소비녀, 그대는 누구입니까?_ 레 티 황 쥘 다니엘 소비녀
- 116 사랑은 받는 것 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_ 응웬 티 홍 머 마리오나 소비녀

고유함과 다양성을 선물로 여기는 공동체..



소비녀지는
지구환경을 생각하여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공동합의성으로 살아 숨 쉬는 새로운 공동체..

진정한 사회적 대화는 다른 이들의 관점을 존중하는
능력을 전제로 합니다.
상대방의 관점 안에 정당한 신념과 관심사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대화 상대방도 각자의 정체성에 기초하여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지니고 있습니다.
공개 토론이 더욱 충만해지려면 각자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각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고
가치와 신념을 확고히 고수하며 사고를 발전시켜 나갈 때,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 과정이 대화와 다른 이들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한에서만 효과적으로 실현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모든 형제들> 20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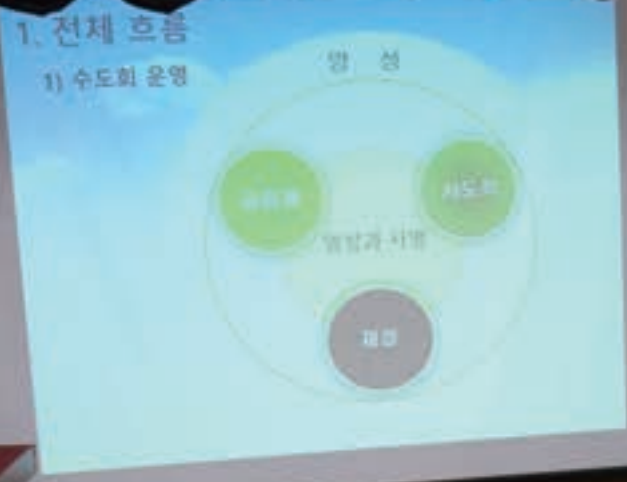
선언문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이사 40,1)
참으로 내가 너에게 건강을 되돌려 주고 너의 상처를 고쳐 주리라.(예레 30, 17)”
우리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총원에서 열린 제17차 수도회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실행하기로 선언한다.

총회 주제 : 부서지고 상처 난 내 백성을 회복하여라!

결의안 : 통합생태적 삶으로 대전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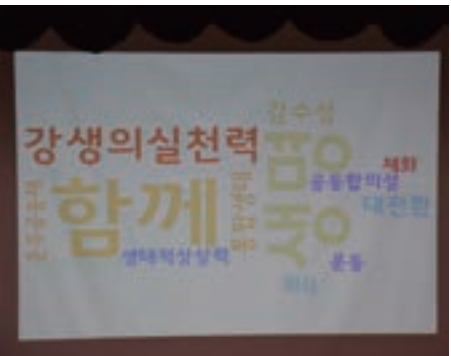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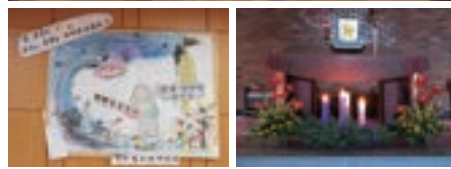
2020년 12월 15일
성가소비녀회



제17차
수도회 총회 스케치







생명의 네트워크를 이룬다

총회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새로 선출된 나 니콜라오 총장 수녀님과 평의원 김 미카엘, 안 마리벨라렛다, 이 디스마 수녀님을 만났습니다.

평소와 달라진 자리, 삶의 공간에서 애써 적응해가며 하느님께서 수녀님들을 통하여 이루실 계획을 '순명'으로 받아들이며 내적 기쁨과 바쁨을 오가며 지내고 계신 시간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총원으로 들어오셔서 달라진 일상을 적응하며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나 니콜라오 소비녀 : 총원으로 들어와서 매일의 바쁜 나날이에요.

총원의 일정도 익혀야 했고 새 역할의 일들도 배우고 수행하는 일정이 매우 바쁩니다.

총장으로 선출된 당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막막했었는데,

지금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총장에 선출되어 단상에 올라가서

한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그때 “관구에서 관구장직을 하면서 심적으로 영적으로 철저하게

가난을 체험했기에 4년 지낸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했었어요.

지금도 익숙해지지 않고 편안해지지 않은 자리이지만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 미카엘 소비녀 : 2020년 12월의 마지막 날에 총원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전 소임의 정리는 제대로 마무리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함께 일을 하고 있던 신부님께서 잘 받아 들여주셔서 감사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면 빨리 가서 정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전 행정팀 수녀님들이 총회 후 이동하시고 총원에 아무도 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총원 식구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일찍 올라와야겠다고 생각한 부분이었지요. 물론 전 소임을 떠날 때에도 그동안 관계했던 교도소에 있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재 총원 생활은 잘 지내고 있고 새 소임에서 배워야 하고

회원들과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디스마 소비녀 : 선거 때 저의 이름이 나오는데 눈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울면 누군가가 ‘울지 마라, 내가 대신 해주겠다’라고 말해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웃음). 살면서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지고

땅이 꺼지는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기에

처음에는 하느님이 저에게 참으로 가혹하다고 생각했어요.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에게 ‘신앙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도대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막막했지요.

지금 그나마 정리된 것은, 우리가 총회 때 대전환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 기존의 관념을 넘어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냐고 하느님께서 저에게 또는 수도회에 내민 도전장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향한 하느님의 양성은 가혹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 분명 성장한다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함께 계시는 수녀님들이 좋으셔서 큰 위로와 감사가 되고 있어요.

안 마리벨라렛다 소비녀 : 총회를 하면서 우리들 앞에 놓인 이 시대의 위기가

엄청난 절박감과 도전으로 밀려왔습니다. 온 우주가 지켜보고 있는 우리 총회가

정말 중요하다는 성령의 다그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성체 앞으로 달려가

성령과 시대의 요청을 적당히 비켜가지 않는 총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급박한 시대 상황이 우리의 등을 떠미는 때에, 그것도 통합생태적 삶으로 대전환한다는
 역동적인 의안을 결정한 이때에 총원으로 부르심 받은 의미를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한 기도가 부메랑이 되어 저를 친 느낌이기도 하고,
 인간적으로는 이 일을 분명 더 잘 할 수 있는 수녀님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나인가하는 두려움과 부담감이 밀려와요.
 하지만 인간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는 하느님께서
 먼저 저 자신의 작은 전환부터 이루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에서 물을 들이킬 힘조차 없어 혀로 핏을 먹는 허약한 군사들을 추려서
 미디안을 치러 나가신 하느님께서, 또다시 힘없고 약해서
 오로지 하느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 일을 하시려나 보다 하고
 스스로 위안하며 통합생태적 대전환의 출발 선상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어요.

수녀님들의 수도회 행정 역할은 어떻게 나누었는지요?

나 니콜라오 소비녀 : 2월 회보에 자세하게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회보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디스마 수녀님이 양성 1(성소기~종신서약기), 해외선교 유기서약자들을 담당할 것입니다.
 또 안 마리벨라멧타 수녀님이 양성 2(해외선교 계속수련, 자기양성), 역사연구, 도서관 등입니다.
 김 미카엘 수녀님이 해외선교사 지원, 생태사도직, 예수마리아요셉회, 교육관 등을 담당하며
 제가 전체 수도회 운영 및 JPIC 사무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더 자세한 것들도 정하였는데 회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짧은 한 달의 시간 안에 워크숍도 진행하셨는데, 수도회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나 니콜라오 소비녀 : 총회 주제와 의안이 우리가 가야 하는 삶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생명의 네트워크를 이룬다'로 정해 보았습니다.
 온전한 생태적 삶을 방향으로 잡고, 총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 시대는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할 수 없어 1년마다의 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유연하게 바꿔가며 확장시켜 가야 합니다.
 그래서 4년 전체 계획을 3단계 영역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총원과 관구, 소비녀 간의 생태적 의식을 높이고 합심과 연대를 위하여
 '손잡고 나아가기'로 정했습니다.
 손잡고 나아가는데 있어 우리 소비녀들 모두 지금까지 잘 해왔고 또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소비녀들 전체가 JPIC에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전 회원이 함께 집단지성을 높이기 위한 주제가 있는 책을 읽고 나눔을 통하여
 의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총원 JPIC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구에도 JPIC 담당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현재 각 관구에서도 JPIC 사무국을 구성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수도회로써 총원과 관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하여
 떠올려 본 것이 총원 공간에서 관구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모아서 장터(플리마켓, 마르쉐)를 열고
 모여 토론도 하고 하는 행사들을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열기'입니다. 지역사회에 성재덕관 및 수도회 일부 공간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성재덕관의 1·2층의 공간을 재조정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넘어서 나아가기'예요.
 생태적 삶을 사는 것 안에서 빗물 저금통과 햇빛 발전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후행동을 위한 활동들도 할 것입니다. 또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분의 총원 잔디밭을 채소밭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할 것이구요.



사회적 약자를 돕는 후원 등의 활동도 활발히 진행할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이렇게 구성했지만 일단 시작해보면서 평가한 후

또 그 명제 하에서 연구하고 실행하며 보완을 통하여 통합생태적인 삶으로 대전환하기 위하여 점차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디스마 소비녀 : 이번 총회에서 ‘함께’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고, ‘경계를 넘는다는 것’, ‘우주적 성가정’이라는 말도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인간들에 의해 끊어진 많은 것들을 같이 힘을 모아 새로운 연결의 그물망을 짜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이 시대의 한계를 넘어 나아가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성장의 한계와 경계를 넘어 나아간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우주적 성가정’은 하나라는 의미로 공동체성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총회 때 많이 이야기된 공동체성, 연대, 치유, 생태, 생명에 대한 것들을 살고자 하여 ‘통합생태적 삶으로 대전환한다’가 의안이 되었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손잡고 나아가기’, ‘열기’, ‘넘어서 나아가기’를 통하여 총회의안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인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더이상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변해가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의 수도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 니콜라오 소비녀 : 국가에서 나오는 행정지침이나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국민이기에 국가의 지침을 최대한 지켜가면서

우리 안에서의 움직임을 변화시켜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입니다.

사회적 가치에 두고 있는가, 생태적 가치에 두고 있는가,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따른 가치에 두고 있는가는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런 것이 확실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는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치관이 확고하지 않다면 국가의 제도 뒤에 쉽게 숨을 수 있겠지요.

우리의 영성과 가치관과 목표가 뚜렷하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방법적인 것들에 대한 것은 함께 논의하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가난한 이들에게로 가야합니다.

김 미카엘 소비녀 : 우리 수도 여정 안에서 우리 수도회가 또 우리 수녀님들이 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외부 교육도 많이 했고, 다양한 연대도 많이 하고 또 다른 방면으로 세상과 함께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총회문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자기회심’ 이야기에서, 회심은 의식의 변화인데 그 부분이 우리 안에 잘 연결되지 않으면 각자가 열심히 수도생활을 하여도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제대로 된 통합이 되어 함께 간다면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삼위일체의 윤무를 공동체성으로 볼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록 작은 일이지만 나비효과처럼 더 큰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동시에 우리 안에서 먼저 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심 안에 삶을 단순화시키는 작업과 우리의 의식 전환이 삶의 차원으로 이어지는 노력이 분명 필요합니다.

수녀님들의 하느님을 향한 개인 소명이 궁금합니다.

나 니콜라오 소비녀 : 우리가 양성 받던 시기에는 개인 소명에 대한 의식이 없었던 거 같아요. 근래에 개인 소명을 찾는 것이 중요하게 되어 저도 저의 소명이 무엇인지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찾은 저의 소명은 '아훼 이레'입니다. 수도생활을 하면서 쉽게 넘어가는 일이 없이 항상 힘은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결국 하느님께서 다 마련하신 것들이었음을 체험합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였고, 그래서 그렇게 미리 준비하셨구나 하는 경험을 많이 하였어요. 이번 일도 마찬가지겠지요.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들지만 어느 날 분명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마련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을 것이라 믿고 따라갈 예정입니다.

김 미카엘 소비녀 : 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하였어도 제 안에 참 자유를 가지고 있지 못함을 많이 느낍니다. 이후 '생명이신 하느님'에서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음을 느끼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와 더불어 '생명이신 하느님'도 같이 소명으로 품고 있어요.

안 마리벨라뎃다 소비녀 : 예전 영신수련을 하면서 받은 소명이 '상처 입은 치유자'였어요. 그 후 자기양성계획피정 중에 계속 '깊은 데'로의 초대를 강하게 받고 있었는데 계제마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깊은 데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저의 소명은 그분의 깊은 데를 살아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양성을 담당하는 동안 수많은 수녀님들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내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감히 이 사람의 이렇게 아픈 곳까지 들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한 사람의 가장 아픈 자리가 가장 깊은 데이고,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자리는 다 그렇게 아픈 자리이고 깊은 데였어요. 그 깊은 데에 함께 있어주고 머물러 있어주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픔이 더 커지고 깊어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아픔도 점점 더 커지고 그래서 함께 해야 할 깊은 데가 점점 더 커지는 걸 느껴요.

이 디스마 소비녀 : 저는 '언제나 함께 계신 하느님'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 하느님을 체험해요.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이 힘이 되었고, 성경에서 와닿는 말씀도 그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지켜봐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신뢰가 자연스럽게 소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의 소명만이 아니라 개개인 모두에게도 하느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기에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안에 계신 하느님을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서도 힘을 얻고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소비녀지에 바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안 마리벨라뎃다 소비녀 : 행정팀 수녀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통합생태적 삶으로의 대전환의 일환으로, 책자로 출간되는 소비녀지도 분명 중요하지만 종이책의 발간 부수를 조정하고 전자책처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한 노년기 수녀님들과 시력이 좋지 못한 수녀님들은 어떤 방식이든 읽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에 오디오 북 같은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또 여력이 된다면 노년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비녀지를 함께 읽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해주면 수녀님들이 소비녀지에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회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 니콜라오 소비녀 : 부족하지만 하느님의 안배를 믿고, 우리 수도회와 수녀님들 모두 통합생태적 삶으로 대전환의 길을 가기 위하여, 기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가는 길이 다소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기도 안에서 마음을 모아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7차 수도회총회 후 제3차 관구총회

실행사항 : 새로운 부르심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 생태적 상상력으로 경계를 넘어 세상과 연대한다 -

새로운 부르심 운동은 상처난 어머니이신 지구,
냉대와 무관심으로 잊혀진 자매요 형제인 사회적 약자들,
우리와 같은 생명의 원천인 피조물의 절규를 '보고 듣고 느끼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별떡 일어나는(일으켜 세우는) 운동이다.

우리는 나 혼자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삼삼오오 함께 가슴과 머리를 맞대어
변화의 불씨를 일으키고자 하며, 이 새로운 부르심에 희망을 지피는 연대의 파수꾼이 되고자 한다.

창조주 하느님의 시선으로 관상하는 '생태적 상상력'으로

'보이는 경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 나 자신을 포함한 세상과 연대함으로써
통합 생태적 삶으로 대전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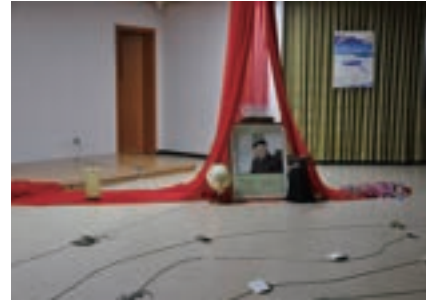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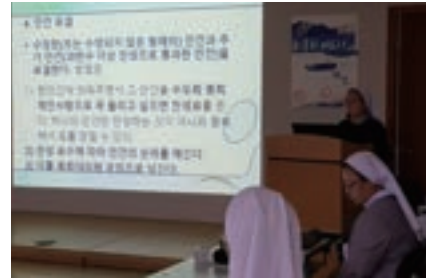
이 대전환은 깊은 회심을 바탕으로

- 나의 경계,
- 사도직의 경계,
- 익숙하고 편리한 생활양식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소비녀들은 연대의 길을 걸으며, 모든 생명을 살리는 선택에 집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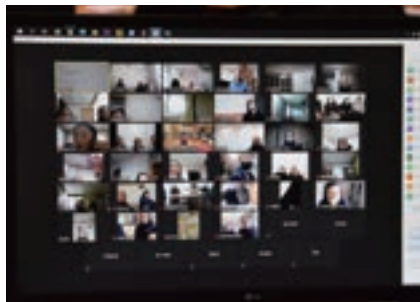
또한 생태 영성을 통해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지구 공동체 안에서 불씨가 되는
'새로운 부르심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2021년 1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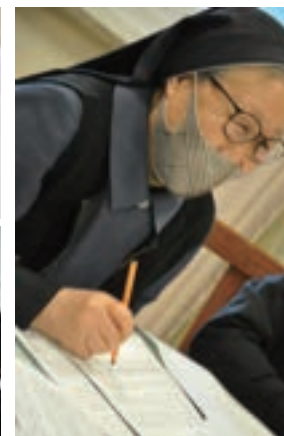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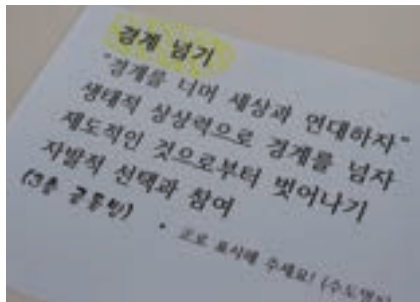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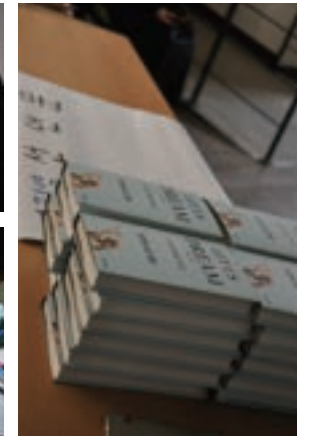


의정부관구 총회





의정부관구 지역모임



제17차 수도회총회 후 제3차 관구총회 실행사항

- **멈춘다. 품는다. 나눈다. 살린다.** - 개인, 공동체, 관구 차원에서 계획, 실행, 평가한다.
- **공동사명 실현을 위해 공동체 및 지역의 권한, 자율성, 책임을 확대해가는 방안을 모색한다.**

• **멈춘다, 품는다, 나눈다, 살린다.**

이 네 가지 단어에는 통합생태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실천적인 측면, 즉 움직임일 일으키는 역동성이 담겨 있습니다. 네 가지 실천은 어느 한 가지부터 시작해야 하는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차원이 아니라 순환적인 차원으로 어느 한 차원에 힘을 기울이면 다른 차원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아울러 모든 존재를 소중한 생명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우리의 기도와 회심과 투신의 실천들이 서로 연결되어 생명의 그물망을 짜게 합니다. 이 그물망은 선의를 가진 다른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연대와 합심으로 풍요로운 우주적 성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합니다. 그리하여 개인이나 공동체, 지역, 관구가 생태적 상상력, 강생의 실천력, 창조적 모성 등을 갖가지로 힘껏 발휘해 어느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거나 무게를 두어 실천을 해도 통합생태적인 삶으로 대 전환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다양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모색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유롭고 창조적인 움직임과 실천으로 부서지고 상처 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저마다가 선물로 받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살리며 서로 지지하고 북돋우며 함께 걷는 여정으로 통합생태적 삶으로 대 전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 **공동사명 실현을 위해 공동체 및 지역의 권한, 자율성, 책임을 확대해가는 방안을 모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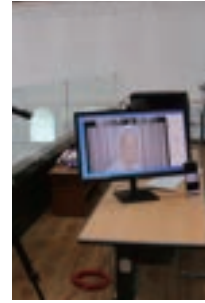
각 회원들이 원형구조 안에서 공동합의성을 바탕으로 대화와 소통, 경청과 개방, 공유와 협력을 통해 시대의 소명을 찾아 열정을 기울여 살아나가야 합니다. 회원 한명 한명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도생활 전반에 걸쳐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지역 조건과 공동체 특성에 맞게 과감하게 도전하며 파괴되어 가는 세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통합생태적 삶으로 대 전환하기 위해 우리 인천관구 소비녀들은 성신부님의 간곡한 권고를 깊게 새깁시다.

“전쟁과 같은 이 시기에 위험한 것은 전염병이 아니라 우리 수녀들끼리만 잘 사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향해 크게 소리치며 함께 해주시는 성신부님의 격려로 힘을 냅시다.

“소비녀들! 멈춘다, 품는다, 나눈다, 살린다를 주님의 안배를 믿고 해보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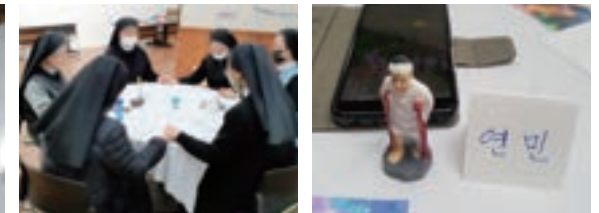


인천관구 총회





인천관구 연수



하느님의 희망이 작은 씨앗이 되는 전적인 봉헌..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 때,
그들은 자신들의 고유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을 얻습니다.

우리 세상이 피폐해지지 않으려면 오랜 세월을 걸쳐
변창한 다양한 문화들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문화적 고착화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기에,
다양한 문화들이 다른 현실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각 사람의 은사를 발견하며,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증진하고,
우리의 다름을 상호 존중 안에서 성장하는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개인과 가족과 공동체가 자기 문화의 가치를 전수하고
다른 이들의 경험에서 얻은 좋은 것들을 받아들여려면
인내와 신뢰가 깃든 대화가 필요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모든 형제들> 134항

작은 자의 하느님

최지현 바오로 소비녀

우리는 보통 어떤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듣기도 말하기도 꺼려합니다.
이유는 결과가 어찌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과정' 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한 문화에 젖어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각자의 길에서 저마다 함께 걷는 여정'(공동합의성, synodalitas)에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성령께 온전히 열려 있을 수밖에 없기에
결과는 우리들의 소관이 아니고 그 결론을 향해가는 '여정' 자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로 그런 방식으로 소비녀들은 제17차 수도회 총회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팬데믹의 시기, 비대면이 대세이고
대면은 민폐 취급을 받는 이 시대의 징표는 무엇일까요?

우리 소비녀들도 세상의 흐름을 따라 비대면의 흐름에 올라타는 것일까요?
아니면 비대면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잊혀진 이들을 향해
팬데믹의 시대에 생태적 상상력을 발휘해
새롭고도 놀라운 방식의 만남과 접촉을 시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고민의 여정 중에 한 소비녀를 떠올립니다.
하루에 몇 만명씩 코로나 19에 감염되고 국가 봉쇄령이 내려지는 나라,
이탈리아에 홀로 생존하고 있는 최지현 바오로 소비녀.
이런 시기에 국외자로 또 경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소비녀와 온라인으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한 지 1년 정도 되었고, 프란치스칸 영성신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현재 1학기를 마쳤습니다.

1학기에는 영성의 기본적인 과목들, 프란치스칸에 관한 과목 및
축성 생활 신학 등 10과목을 들었습니다.

많은 과목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좋은 과목들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총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수업이 온라인으로 바뀌었고, 학사 시스템과 온라인 시스템에 적응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큰 탈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일정기간 언어를 배운 후 2학기 입학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스스로도 언어에 확신이 없었고, 주위에서도 2학기 입학은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조언들을 많이 하여, 오랜 숙고와 기도 끝에 수녀님들과 의논해서 제대로 1학기로 입학하여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잘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한 것이, 2학기 입학할 하고 공부를 시작했으면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기에 더 힘들었을 거예요.

학교들이 바로 온라인으로 전환되지 못해 매끄럽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에 어려움이 없어졌어요.



이곳에 와서 매 순간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에 최대한 기도하고 숙고하고 많은 생각을 하죠.

하지만, 매일의 불안감 속에서 얼마나 절박하게 하느님께 의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의탁한다고 하면서 나의 계획과 시나리오 안에서 헤매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있으면 하느님이 얼마나 안쓰럽게 보실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매일이 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매 순간의 온전한 식별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특히 유럽국가들 사이에서 심각하게 퍼지면서 이곳에서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도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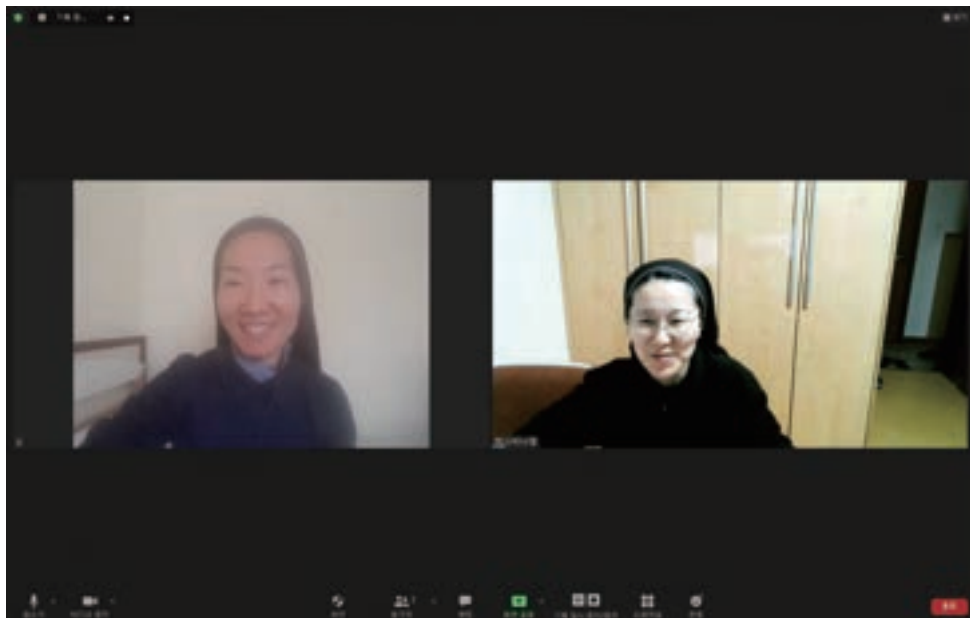
그러기에 저도 많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죠.

어느 한 분이 돌아오라고만 하면 당장 들어가고도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이 다른 사람들은 잠시 이 시기를 피해 갔다 다시 돌아오는 것이지만, 저는 한국에 모든 짐을 들고 들어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국이 저에게 주는 안정감, 음식, 익숙한 생활공간 등에 안주하면 돌아가겠다고 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이곳에 있는 것을 선택한 식별의 기준은, 이곳에서 저의 일상을 전혀 잃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언어만 공부하면 되었어요.



그런데 언어도 온라인으로 바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미사가 끊기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생활하고 있던 수녀원에 신부님이 매일 오셔서 미사를 해주셨어요.
그렇기에 이곳에서의 제 일상이 전과 다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
본국에 돌아가면 다시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저를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한
식별의 기준이 되었고 아직까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세상 안에서 나의 존재 인식

물론 심리적으로 불안함 속에 지내고는 있어요.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한 제가 아시아인이기에 저의 존재를 바이러스 덩어리로 취급하는
인종차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 어느 흑인이 다가와
저의 몸을 만지면서 '너 코로나. 나는 용감하기에 너를 만질 수 있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었어요. 그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나라는 존재가 소비녀,
수도자가 아니라 '바이러스 덩어리, 인류의 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낯선 나라에서
친구도 보호자도 없는 곳에서 살아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생활하고 있던 수녀원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수녀님들도
그렇게 나를 바이러스 덩어리고, 바이러스를 옮겨온 민족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위축되어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비스러운 하느님 체험은 어느 날 그곳의 한 수녀님이
어깨가 결린다고 해서 주물러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녀님이 효과가 좋으셨는지 다른 수녀님들께 소문을 내셨고
다른 분들도 저에게 '너 안마 배웠나? 의사냐?' 하며 저에게 다가와 주었어요.
그것이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희망이라고 느껴졌어요.
세상의 사인으로는 저의 존재가 바이러스 덩어리처럼 되어버렸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그들이 저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나의 이름 안에 나의 답이 있다

그것과 함께한 또 다른 체험 하나는,
공동체 수녀님들이 저에게 안마를 너무 자주 해달라고 요청하셔서
나중에는 그들의 마사지가 된 것 같은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뉴스에서 '지금은 3차 대전의 시기다'라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 말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2차 대전 때 우리 수도회는 생겨났고 그 당시 초창기 수녀님들은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였으며 다른 수도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소박한 수녀님들을 하느님께서 알짜배기로 모아 함께 공동체를 꾸리고
가난하고 절박한 이들을 위해 무모하게 투신한 수도회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스스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곳 로마에 집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말도 잘 못하는 '나'라는 존재지만
2차 대전 당시 하느님이 우리 초창기 수녀님들을 통해



하느님의 일을 하였다면 3차 대전인 지금 나도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라고 초창기 수녀님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가진 것 없는 것이 아니라,
 이곳 수녀님들이 지금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그들이 내가 사는 집의 주인 수녀님들이 아니라 소비녀 한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작은 이들이라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후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사라졌어요.
 하느님 안에서 잘 식별했을 것이라는 신뢰는 있었었습니다.
 제 이름은 바오로인데, 바오로가 '작은 이'라는 뜻이에요.
 소비녀라는 것도 작은 존재이고 저의 이름도
 작은 이이기에 저는 '작은 이의 작은 자'예요. 더 작아져서 하느님 만나고
 공동체에 전달하고 그렇게 배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체험을 통해 저의 이름 안에 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일을 일상 안에서 하는 것

언론에서 자주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이곳의 많은 성직자, 수도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고, 또 선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대부분 의료 관련된 일이나 노인 관련 사도직을 하는 분들이 당연히
 감염이 많이 되는 것은 그들이 부주의하여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는 어떤 일에 뛰어들기까지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많은 계획과 회의를 통해 고려하지만 이 나라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일단 그냥 한다는 것이 장점이고 단점인 것 같아요.
 내가 그들에게 당장 가지 않으면 아파서 죽거나 밥을 굶을 사람들이기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특별할 것 없이 매일같이 하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보다는 물론 위험스러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바이러스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나라 안에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곳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편안함과 안정감을 포기한 자발적 유목민의 삶

저는 지금 유목민과 같은 상황입니다. 물론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살고있는
 집도 세 번째 이사한 집이고 조만간에 네 번째로 이사할 예정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또 하나 느낀 것은 저는 안정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성향이고,
 또한 조용하고 차분하고 침착함을 스스로의 정체성이라고 알고 살았었는데요.
 제가 추구했던 안정성이 자신을 망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유지하고 싶었던 침착하고 차분한 것이 스스로의 가장 큰 장점이고
 나를 표현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느님은 그것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내가 느끼는 편안함, 안정감이 저라는 사람을 건강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정화 되는 순간 내가 느슨해지고
 그때부터 하느님께 멀어진다는 것을 극명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 이곳에 올 때 마련된 거주지에 지속적으로 있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만 의도하지 않게 그 집이 공사를 하게 되어
 더이상 살기 어려워졌어요. 새로 살게 된 집에서 1년은 살 수 있었지만
 체류허가를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집에 살게 되었지만 이 집은 너무 편안하고 좋은 집이에요.
 그런데 제가 안주하고 편안해지면 어떻게 되겠다는

제 스스로의 미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몇 가지의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겸사겸사 이사를 다시 해야만 해요. 새로 가는 집은 지금 보다 조금 더 허름하지만, 학생들이 20명 정도 생활하고 있다고 해요.

또 하나 경험해보고 싶은 것은 형제애를 느껴보고 싶어요.

제 소명을 살고 소비녀로 살면서 이 안에서 또 다른 형제애를 느끼며 생활한다면 더 풍요롭게 해 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가정의 영성은 환대의 영성인 것 같아요.

집을 옮길 때마다 저 스스로가 얼마나 환대를 필요로한 존재인지 느끼게 됩니다.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밥을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집을 찾고 있어요.

새로 이사 가는 수녀원 기숙사에는 형제들 안에서 공동체의 사랑을 느껴보고 싶어요.

물리적 거리도 막을 수 없이 이어져 있는 우리의 영성

관구 총회를 온라인으로 함께 하면서 어떤 것이든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수도회의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곳에는 아직도 수직적인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찾고 시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곳에서 저에게 공동합의성을 물어봐요.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빨리 흡수하려고 하지만 이곳은 가톨릭 국가라 처음부터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인지 오히려 빨리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자신도 총회문헌 안에 한 마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멀리 있지만 역시 '한 배'라고 느꼈어요.

새로운 부르심 운동이라고 표현한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고 스스로 생각하던 것과

통하는 부분이어서 좋았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우리 수도회가 멋있다는 생각을 한 시간이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수녀님들께서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수녀님들 덕분에 지금 이렇게 멀리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려요.

내년에 돌아갈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큰 품으로 다시 연결되기

이나경 사도요한 소비녀



이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도 있는 약 15개월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두려움과 걱정을 가득 안고 떠났던 첫 시작, 세계 각국의 친구들과 함께 서로의 삶과 꿈을 나누었던 날들 그리고 또 서로의 다름속에서 갈등하던 시간들, 아름다운 자연 안에서 하느님을 만났던 풍요로움, 제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 앞에서 절망하며 한 발도 나아갈 수 없었던 어려움들, 코로나로 페루 정글에 고립되기도 하고 봉쇄된 마을에 머물렀던 예상치 못했던 시간들... 매 순간이 하느님께서 그리고 수도공동체가 함께해 주시길 않았다면 마무리될 수 없었던 참으로 감사한 시간입니다.

전환을 위한 혁신 센터

슈마허 대학¹⁾에 대한 소개부터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영국의 남쪽 테본주의 다팅턴이라는 작은 마을에 위치하고, 인근에는 영국에서 최초로 전환마을(Transition Town)운동²⁾이 시작된 토트네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설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슈마허대학은 국제적인 평화 운동가이자 생태운동가인 사티쉬 쿠마르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슈마허라는 이름에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작은 것이 아름답다'의 저자 에른슈트 슈마허의 이름을 교명으로 삼아 문을 열었습니다. 슈마허 대학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저는 '전환을 위한 혁신 센터'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슈마허는 '온 몸으로 배운다(또는 행함으로써 배운다, 살면서 배운다 Learning by doing)'는 슬로건을 가지고 홀리스틱(Holistic)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 슈마허대학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경향신문 기사(2019.3.6.)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 지성과의 대화⑤ 학교서 농사짓고 명상하는 학생, 교수들 과도한 합리성에서 탈출할 대안을 일구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3062217005
2) 토트네스 전환마을에서는 마을 주민의 주도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로컬푸드 운동, 공동체 텃밭 나눔 운동, 에너지 자립 운동, 새로운 경제센터, 지역화폐, 생태건축 오픈하우스, 로컬 맥주 양조장 등 에너지, 건축, 음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환을 위한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즉,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실천합니다. 교실에서 수업하고 공부하다가도 매 식사 때면 함께 주방에서 밥을 짓고 텃밭에 나가 흙을 만지며 농사를 짓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우리 자신, 공동체 그리고 지구(자연)가 함께하는 일상의 통합을 위해 노력합니다. 슈마허 대학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변화무쌍한 지구 전역의 생태, 경제 및 사회적 도전에 앞장서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 전환의 여정 자체에 의미를 두며 한 발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디자이너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는 디자이너이다. ‘우리 모두’라 함은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계획해야 하는 모든 주체(개인 뿐 아니라 단체, 회사, 공공기관, 도시, 지역, 나라까지 포함한) 모두를 의미한다.”

- 에치오 만치니, 「모두가 디자인 하는 시대」 中 -

“모든 사람은 참여자이자 디자이너이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하고 고유한 앎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함께 일하며,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치유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치유한다.”

- Sim Van Der Ryn, 2007 「Ecological design」 中 -

슈마허에서 제가 참여했던 과정은 ‘생태적 디자인 사고(Ecological design thinking)’입니다. 학교를 지원하면서 슈마허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나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에 우선 관심을 갖게 되었었고 그 후에 어떤 과정에 참여할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환을 위한 경제학(Transition for Economics)과 생태적 디자인 사고 두 가지의 과정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생태적 디자인 사고라는 과정은 저도 낯설게 느껴졌고(사실 이 이름의 과정은 전 세계에서 슈마허에만 있습니다), ‘나는 디자인도 모르고 디자이너도 아닌데



이 과정에 지원해도 되나’ 하는 고민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과정에 참여하면서 우리 모두가 디자이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씽킹³⁾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생태적 접근 방식을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생명이 생명을 살리는(regenerative) 미래로 전환하기 위해 비전 수립 및 재구성, 시나리오 플래닝, 협업 등 실질적 활용 방법들에 대해서

3) 디자인씽킹은 세계적인 디자인 컨설팅회사 IDEO사에서 시작한 것으로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해결방식을 사용자와 함께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접근 방식이 기업에서 혁신경영의 방법으로 관심을 받게 되어 국내에서도 최근 많은 기업들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DEO사의 CEO 데이비드 켈리는 디자인씽킹을 ‘사람 중심의 공감을 통해 문제를 새롭게 해석하고 풀어내는 창조적 혁신을 촉진하는 마인드셋’이라고 정의하고, 팀 브라운은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바꾸는 발명이다’라고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이런 디자인씽킹의 개념을 슈마허에서는 기존의 사람 중심이 아니라 생태 중심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기후위기의 더 넓은 맥락으로 확장하고자 한 것입니다.



접하는 기회들이 주어졌습니다. 슈마허가 추구하는 것이 그리하듯, 이 과정도 목적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여정(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루어내는 성과나 결과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해야 하는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어떤 방식으로 누구와 함께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가 더욱 중요했습니다.

곰곰이 돌아보면 우리는 수많은 디자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에는 디자이너가 드러내고자 했던 의도, 생각, 신념, 가치, 의미, 삶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디자인을 통해 디자이너를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만들어 냅니다. 생태적 맥락에서 접근할 때도 가장 먼저 성찰되어야 하는 것은 생태적 삶을 살고자하는 디자이너로서 나 자신의 관점이었습니다. 1년 동안 다섯 가지의 과정(모듈)과 논문을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 디자이너의 태도와 자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모듈이 바로 생태적 패러다임, 나의 생태철학에 대한 성찰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은 어떠한지, 생태적 삶을 살아가는 원리에 대한 되돌아보이었습니다. 그 뒤로 전환의 촉진, 사회적/정치적 경제에 대한 대안적 방법들, 이야기와 장소의 전환(다트모어 동물원 프로젝트), 행동의 전환(페루 정글에서의 실습)에 대한 모듈이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모듈은 친구들과 함께 그룹 프로젝트로 진행되었고,

새로운 눈으로 어떻게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어떤 가치와 메시지를 담아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기후(생태) 위기의 시대: 생태적 슬픔(grief)과 애도를 통한 응답(지구와 우리의 치유)

“석탄을 태우기 위해 발가벗겨지는 애플래치아 산맥이나 불타는 아마존을 보며 눈물 흘리는 당신을 부끄러워 하지 말아라. 지금 당신이 느끼는 커다란 상실, 슬픔, 분노는 인간성, 진화적 성숙함의 척도이다.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고 열리는 만큼 세상이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 조안나 메이시, 2013, 「Spiritual Ecology」 中 -

2019년 호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몇 달간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갔고 호주 내 전체 숲의 20%가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 TV에서 연일 중계되는 산불을 보며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 것이 제 논문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산불이 발생했던 그 지역은 제가 입회 전 회사를 다닐 때 투자에 참여했던 석탄광산이 포함된 곳이었습니다. 호주의 산불을 제가 지른 것 같은 죄책감과 함께 마치 오래된 친구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듯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후에야 혼란스러운 이 감정의 소용돌이가 상실로 인한 생태적 슬픔(ecological grief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태적 슬픔은 아직 국내에서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미주와 유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슬픔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어(정신건강 측면에서 문제가 될 정도로)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4) grief라는 단어는 우리말로로는 비탄이라고도 번역되는데, 단순히 슬픈 감정(sadness or sorrow)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실로 인한 슬픔을 의미하며(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같은) 슬픔 속에는 죄책감, 분노, 우울 등과 같은 상실 후 겪는 일련의 감정들이 함께 포함되어 정의되기도 합니다.

보통 생태적 슬픔이라고 하면, 기후변화와 생태위기로 인해 파괴되어 가는 생태계, 생물종, 장소 등 직간접적으로 삶, 문화, 정체성이 상실됨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슬픔을 이야기하거나, 생태적 상실을 지속적으로 목격 또는 관찰함으로써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파괴에 의해 슬픔을 느끼거나 불안을 겪는 정신적인 고통이나 심리 반응을 의미합니다.

과연 이런 생태적 슬픔과 불안이 단지 심리적, 정신적 측면의 문제이기만할까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상실로 인한 슬픔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파괴한 지구는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파괴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파괴된 지구의 고통은 우리들에게 육체적 건강의 범주를 넘어 정신건강과 영적 측면에까지 맞닿아 있음을 여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논문을 통해 제 삶을 돌아보며 생태적 슬픔에는 두 가지 측면이 얽혀있다는 것을 성찰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의 호주 산불의 사례와 같이 지구의 파괴를 바라보며 느낄 수 있는 슬픔(자연의 애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상실과 슬픔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에 옳다고 믿어왔던 가치와 신념이 바뀌어야 함을 깨닫게 되고 전환될 때 고통스러운 깨어남의 과정(waking up syndrome, 깨어남 증후군)이 수반됩니다. 의식의 전환과정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해체과정이지만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상실로 인한 슬픔은 우리의 깊은 연결을 다시 보여주며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깨어나는 과정의 혼란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더 큰 존재로 확장됨을 축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슬픔을 어떻게 건강하게 애도하고 생태적 대전환의 길로 이끌어 지구를 치유하고 우리 자신을 치유할 수 있을까, 서로의 생태적 슬픔을 더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이름을 붙이고 이야기를 알리며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족한 논문에 대한 연구를 일단락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고통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느껴야만 합니다. 그 곳에서 바로 치유가 시작 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1년 여의 여정을 마치고 와서 수녀님들께서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셨을 때 감사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파랑새를 찾으러 떠났다가 그곳에서 찾은 것일까요?

머리에 있던 것들이 가슴으로 조금 더 내려온 시간들 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살면서 배우는 과정에서 그리고 논문을 쓰는 여정 안에서 우리가 하려는 전환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행동으로 실천하고 드러나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환의 여정 안에서 늘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하지만 그 고민과 멈춤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입니다.

그것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며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정 축하할 일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것 밖에 안하는지’ 비난하고 판단하며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약합니다.

서로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각자 다른 보폭으로 이 여정을 시작했으며 함께 걷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에 나 하나의 전환으로 마무리될 수 없습니다. 고민과 멈춤의 순간이 더 늘어나 생태적 전환의 삶을 선택하고 식별하는 순간들도 늘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피조물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할 수 있길, 우리 개인들의 약함이 공동체의 도움과 지지로 성장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전환의 치열한 현장은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태적 대전환의 삶을 살아가시는 수녀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창조는 사랑의 질서입니다.

하느님 사랑은... 모든 창조된 것들 안에 있는 근본적 동력입니다.

순간 스쳐 지나가는 가장 작은 존재들의 생명조차도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입니다.

그 존재가 단 몇 초밖에 안 산다고 하더라도.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그 존재의 전 생애를 포용하십니다.”

- <찬미받으소서> 77항, 박동호 역 -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밝게 빛나는 표상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 세상을 새롭게 건설하고자
우리가 어떤 근본적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 줍니다.
많은 고통과 상처 앞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선택은 강도들의 편이나 길가에 쓰러진 사람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한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다른 이들의 약함을 자기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어떤 계획을 통해서 한 공동체를
재건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그들은 배척의 사회가 건설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다가와서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고 회복시켜
공동선을 이루게 합니다. 동시에 이 비유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인간 현실의 피할 수 없는 요구를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태도를 경계하게 해 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모든 형제들> 67항

인류공동체가 함께
생명의 그물망을 짜는..

변하는 것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일관됨의 시간..

노숙인들을 위한 급식소 ‘프란치스코의 집’

지난 2020년 12월의 마지막 날 서울 제기동에 위치한 노숙인들을 위한
급식소 ‘프란치스코의 집’을 방문하였다.

코로나 19로 사람이 모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시기에도 프란치스코의 집은
서로에 대한 약속과 질서를 지켜가며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노숙인들의 생존을 위한 밥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 현장의 소리를 시설장 이상호 세라피노 신부님을 통하여 들을 수 있었다.



노숙인들을 위한 급식소인 '프란치스코의 집'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수도회 관구회의에서 '이 시대의 가난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형제들의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숙고를 통해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 노숙인을 생각하였고, 그들을 위해 밥 한 끼 주는 활동을 하자고 결정하여 1988년도에 세 명의 형제들을 구성하여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였고 제기동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처음 시작은 지금의 장소가 아니라 경동시장 안쪽 3층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였다. 그 당시에는 열 명 남짓한 노숙인들이 찾아와 밥을 먹었고 현재 30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사도직이다.

이후 IMF 시대의 어려움을 겪으며 많은 노숙인들이 찾아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소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건물은 1층 식당, 2층은 노숙인들이 씻고, 옷을 갈아입고, 자신의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쉼터로 운영되며 3·4층은 수도회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인적 시스템을 보면 초기부터 두 개의 축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나는 수도회 형제들의 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봉사자의 축이다. 그 당시 서울권의 본당 레지오 단체들이 봉사를 해주었다. 월·화·목·금·토요일을 운영하며 초기부터 봉사자들을 구축하였고, 놀랍게도 그분들이 30년 넘게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을 한 축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이 집은 수도회가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형제들이 중심이 되어있지만,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30년의 이 사도직의 길은 봉사자들이 함께 운영한 길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지금은 조금 다른 흐름이기도 하지만, 30년 전에는 젊었던 분들이 지금은 노년이 되었다. 그러기에 재속 프란치스코회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있는 부분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자원봉사자분들 뿐만 아니라 수도회 형제들도 나이가 들어감에도 한결같이 사도직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사도직은 힘든 일이다. 일주일에 5일을 삶의 현장에서 머리보다 몸으로 움직여야 한다. 어느 누가 오든 현실에 부딪히면서 몸으로 움직이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자신을 예로 들면, 3년 전에 자원하여 이 사도직에 왔지만

그 전에는 제기동 프란치스코의 집이라는 사도직은 나의 머릿속에 있지 않았다.

처음 이 곳에 와서 보니 나 자신은 특정한 자리에서 가르치고 지시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면 이 곳은 다이나믹한 일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기에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힘든 사도직이다.

경제적 효율이나 인간적 대우가 동떨어진 이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은

어느 정도 개방되어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

살아보니 형제들이 30년간 했을 도전들을 겪어가는 것이었다.

우리의 일상이 비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무적이고 행정적이며,

누가 찾아와서 물어보면 대답하는 삶의 형태에 익숙하다.

그러기에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내는 이 삶의 현상이 쉽지만은 않다.

몸은 움직이는 것부터 세팅을 해야 했고, 정신은 내가 마주하는 현실에

맞게 적응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렇게 해서 이 세계 속에

섞이게 되면, 이 속에 담겨있는 많은 것을 보게 한다.

그것이 이 집을 30년간 유지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도직에 자원한 계기가 있는가?

지난 6년간 수도회 부관구장 소임을 하였다. 그리고 나서 제기동에 오면
설 수 있겠다는 인간적 생각과 또 한편으로 숨겨진 생각은
나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체계였다. 신앙이든 영신적 삶이든
현실에서 말해지지 않으면 인간 삶과 무관해 질 수 있다.
수도원이라고 하는 내부 삶도 분명 의미가 있지만 우리 삶이 확장되어지는
사도직 삶의 현장에서는 수도회에서 가져오는 내·외적 보화들을 현실의 삶에서
펼치거나 발견하거나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다.
볼 수 있어야 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만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신앙의 삶이 현실의 삶과 유리되지 않는다.
그런 삶의 현상이 이 곳이지 않을까 하는 속생각이었다.
답답함과 갈망은 한 인간의 상태로 보면 같은 말이다.
그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 몸으로 일하고, 내 몸이 느끼고, 나라고 하는
인간이 그 현장에서 어우러지며 살아갈 때 인간 자체가 체험해가는 그것이
더 살아있는 것이고 생동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나를 이 곳으로 오게 한 것이다.

사람이 바뀌거나 시대적 상황이 달라지면 사도직이 식별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같은 영성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3년간 이 집에 살면서 했던 내면의 작업은 이 집의 30년 역사가
어떤 흐름으로 흘러 왔는가였다. 30년의 역사를 단순히 말로 표현하자면
'변하는 것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변하지 않는 것에



일관되게 살아온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시각이겠지만, 수도회 인적 구조도 매년 인사로 바뀌고 사람이 바뀌게 되면 어떤 시설과 사도직의 색깔과 구조를 바꾸게 되는 등의 변하는 것의 속성은 영원하거나 절대적이지 않다.

모든 것에는 자기 시간의 길이가 있고 그 시간이 다 하면 사그라지는 것이다. 변하는 것들의 속성은 시간이 다하면 무더지고 사라진다.

30년의 역사에서 변한 것은 많다. 형제들, 이 곳을 찾는 인적구조, 시설도 변화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면 인생이 허탈하다.

사라지는 것들에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가로 보면 매우 허탈해진다.

우리가 쏟는 헌신이 무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집이 걸어온 단 하나는 시대의 가난한 이들에게 밥을 먹여온 것이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밥을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약을 하게 된다.

그 다음은 옷을 입히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노숙인들은 씻거나, 빨래하거나 쉬거나 하는 것에 취약하다.

노숙인 사회를 보고 우리 공간의 일부를 그들에게 내어주게 되면서 그들을 먹이고, 또한 쉼터로 그들에게 자리를 내 주는 것이 입히는 것으로 도약을 했다.

여기서 사도직을 하면서 의(衣)와 식(食)은 어떤 식으로 대응해 갔다.

그리고 그 다음은 주(住)이다. 보통 사람들이 사는데

가장 기본이 의식주(衣食住)이다. 그러나 주(住)의 문제는 쉽지 않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재작년 노숙인 공동생활 가정을

하나 도전적으로 해보자하여 여기서 매번 식사하시는 분들 중

공동생활이 가능해 보이는 분들로 접근하여 그에 필요한 집을 구입하여 디딤돌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었고 현재 2년 정도 유지되고 있다.

시험적이고 도전적이라고 한 것은 노숙인이라고 하는 삶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그들만의 고유한 습성이 있다.

그 습성이 함께 사는 것을 어렵게 한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전직 노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일상을 사는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공동생활 가정을 몇 개 더 운영하고자 한다.

하지만 집단화가 아닌 작은 규모의 생활가정을 만들 예정이다.



물론 실패도 하겠지만 인간은 의식주가 가능한 상태에서 인간적 삶이 가능하다.

이 집은 변하지 않는 하나를 붙들고 지금까지 왔다. 노숙인이라고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가 되고, 그 형제에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 당시 수도회 형제들이 숙고하며 삶의 형태를 확장해왔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복음 정신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이고

그 이웃과 함께하는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속적 숙고,

그 숙고에 따른 필요한 노력이다.

공간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전 이 급식소의 환경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다.

그 때 한 형제가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 수준이면 이정도면 됐지'라고

표현하는 말이 충격이었다. 여기 오는 손님을 그리스도처럼 모신다고 하면서

기도 할 때나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떻게 이렇게나 다를 수 있는가에 대한 충격이 컸다.

'우리 집 손님들 수준이 이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이 어느 한편에서 이 집을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봉사자들이 봉사할 때 느꼈던 불편함을 이야기 하는 것들을 취합하고 형제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반영하여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많이 깨끗해졌다.
또 하나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인적 환경의 개선이다.
이 집은 세 주체가 걸어가는 길이다.
수도회 형제들과 봉사자들과 이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이다.
이 세 주체는 어느 한 쪽이 더 높다거나 낮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와서 충격을 받은 것은 홀에서 봉사하는 남자 봉사자들 많이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인 것이었다.
우리에게는 영성, 신앙적인 시선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우선이기에 그런 모습이 불편했다.
이 집이 사람들에게 밥만 배불리 먹이게 한다면 그래도 되겠지만, 아무리 노숙자라 해도 인간으로 느끼고 감각하고 그것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그런 인간들의 영역 안에서 우리의 사목은 어떻게 삼아야 하나를 놓고 봤을 때 괴로웠다.
자원봉사자들에게 공지사항을 전달 할 때 한번 생각해보자 하며 계속 대화를 해나갔다. 지극히 인간적 차원부터 신앙적 차원까지 고민을 함께 해보자고 대화하였다. 이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면, 예전에 홀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컸을 때는 밥을 먹는 사람들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그런데 홀과 주방의 소리를 줄였을 때 손님들의 어깨가 펴지는 그 미묘한 변화를 느꼈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이 세 개의 주체가 자기 쇄신을 계속해서 해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느꼈다.
사실 우리는 가난하지 않다. 프란치스코는 형제들보고 가난하게 살라고 하지만 우리는 가난하지 않다. 가난하지 않는 대신에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일한다.
왜 인간이 고압적일 수 있는가 하는 것에는 너보다 잘났다는 심리적 우월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은밀한 심리적 우월성은 다소 우월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시적인 태도를 만들어 낸다. 그러면 이 세계에서 그것이 과연 정상적인 관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시적이고 고압적인 행위는 위에서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할은 같이 있는 것이다. 같이 있는데 고압적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신다고 해서 예수가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높이에서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이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신분이나 역할에서 가지는 우월주의는 사람들을 대상화시키게 되고, 그런 우리는 그들을 먹이는 사람이 되고, 그들은 우리에게 빌어먹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런 차원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 공간을 리모델링 하고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다.
홀에서 봉사하는 형제들이나 봉사자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부드러워졌다. 밥값이 이백원인데 손님 중에는 삼만원, 오만원씩 돈을 내는 사람들이 생겼다. 우리 형제들과 봉사자들에게 건네는 말들도 자연스러워지고 부드러워졌다. 이것이 물리적인 양식을 먹이면서 거기에만 머무를 수 없는, 내적이고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것까지 이 집이 구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공간을 변화시킬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문을 닫을 수 없어 도시락으로 대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서 급식소의 문을 닫고 그 기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다시 영업을 시작하였다.
많은 사람들도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영업을 해야 하냐고 묻는다.
물론 사회적 관점이나 주변 사람들 관계를 생각하면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급식소가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가 되면 책임의 문제가 분명히 클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말하고 싶은 것은 보통 사람들도 밥은 먹으면서 버틴다.
그들은 어디서 밥을 먹으면서 이 상황을 버티는가의 문제였다.
책임을 져야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책임 이전에 덜 가난한 사람들은 자구책이 있지만 우리 집의 손님들은 더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사회가 어려워질 때 더 소외되는 대상이다.
우리도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하면서 그래도 밥은 먹어야하니까 하고 있는 것이다.

생존과 생활을 구분해야 한다.
생활은 생존이 가능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급식소의 현실은 생존의 영역에서 있는 집이기에 어떻게든 버티게 해줘야 한다는 관점이다.

같이 생활하는 공동체 형제들과는 이러한 관점에 대하여
어떻게 대화를 이루어 나갔나?

우리 공동체는 생존의 지점에서 생각했기에 급식을 멈춰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그 지점까지는 버티줘야 한다는 것에 모든 형제들이 동의하였다. 대화로 풀어내야 하는 지점도 있지만 이 집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다들 인지하고 있다.
최근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나왔을 때도 다같이 모여 대화하면서 이 집의 중론은 조금 후퇴한 부분도 있다. 일단 '봉사자들을 위한 미사는 중단하고, 급식은 지속한다'였다. 코로나의 집단 발생지가 된다면 어떻게 책임을 질것인지를 우선 생각하지는 않고, 이 곳을 오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다. 물론 책임을 져야 한다면 기꺼이 질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설령 공동체의 반대로 한동안 급식소의 문을 닫자고 해도 수도회에서는 동의를 할 것이다. 다만 외부의 노숙인들에게 죄송할 뿐이다. 만약 그런 선택을 했다면 죄송하다는 의사는 표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 생활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생존의 문제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공동체가 그 지점을 잘 보고 있었기에 우리에게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공동체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지역사회 안에서 외부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어떠한가?

작년 민원이 들어가 경찰이 온 적이 있다.
행색도 초라한 사람들이 긴 줄을 지어 기다리며 담배를 피우고 떠들며

가끔씩 싸움도 났기에 보다 못한 사람이 신고를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 도전을 감지했다.
 하나는 나가서 줄을 서있는 분들에게 상황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질서를 지키지 못할 경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달리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우리 집이 정해진 시간에는 언제든지 밥을 주니
 시간을 분산해서 와 달라고 부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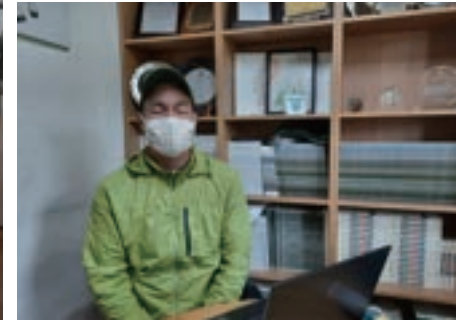
여기서의 방점은 부탁이었다. 심리적 우월감 안에서는
 지시하고 결정하면 되지만 우리는 부탁을 했다. 또 놀라운 변화는
 그들이 말을 듣기 시작하여 시간을 분산해서 방문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때 알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월주의에서 벗어나
 그들을 하나의 주체로 인식하고, 다른 주체에게 협력하고 협조하고 부탁하며
 대화하면 그들과 나는 대화 상대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럴 때 저들과 나는 동등한 인간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저들과 대화 상대자가 될 때
 저들도 한 주체로써 우리에게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별 것 아닌데 색다른 발견이었다.
 또 하나는 대외적인 것이다. 반반이라고 보면 된다.
 반은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 반은 너무나 고마워하는 사람들이다.
 고마워하는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는다.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을 위해
 기울여야 하는 것은 우리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부탁하는 것이다.
 담배피지 말고 떠들지 말고 마스크를 꼭 써달라고.
 또한 때로는 나가서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한 노력 덕분에 지금은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불특정 다수의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대응하는 것은 30년을 지탱하는
 우리 집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 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거리 자체를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이웃들과 함께 하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밖에는 없다.
 이 사도직을 유지하면서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의 이 집의 상태는 매우 좋은 편이다.
 봉사자나 식사하는 분위기나 코로나로 인하여 조금 더 일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세 주체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인격적인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공간이 참으로 감사하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상 당신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녹색연합은 1991년 창립하여 우리나라 자연을 지키는 환경단체입니다.
 주요 생태축인 백두대간과 DMZ를 보전하고
 야생동물과 그들의 서식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현장을 감시하며 에너지가 정의로운 세상,
 쓰레기가 없는 지구,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사회를 그려갑니다.
 <녹색연합 홈페이지 <http://www.greenkorea.org>>

지구가 녹색으로 물들어가는 4월,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환경단체 '녹색연합'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곳에서 기후행동팀 박수홍 팀장님과 만남을 통하여 녹색연합의 활동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녹색연합의 활동이 이렇게 오랜 시간 이어져 올 수 있는 특별함은 무엇인가요?

꾸준히 할 수 있는 단체의 특징은 다른 단체와의 차별성, 장점 및 도드라지는 활동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차별적인 저희들의 활동에 시민들이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고, 또한 지지를 보내주셔야 저희 단체는 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점과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녹색연합의 강점은 저희 스스로도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현장성이 있는 조직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그 현장에서 조사하고, 보고 듣고, 데이터화하여 활동하기에 시민들이 신뢰를 주고 현재까지 유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자리에 앉아서 보도자료를 내는 일도 많이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현장에서 그 곳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별성이고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단체가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산양이 서식하는 곳에 가서 무인 카메라를 달고, 그 자료들을 데이터화 하여 정부에 산양 보호정책을 촉구하거나 요구할 때 활용하는 것이 힘이 됩니다.

이런 현장의 활동이 진정성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진정성이 외부에서 볼 때 우리의 좋은 이미지로 자리 잡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동하시는데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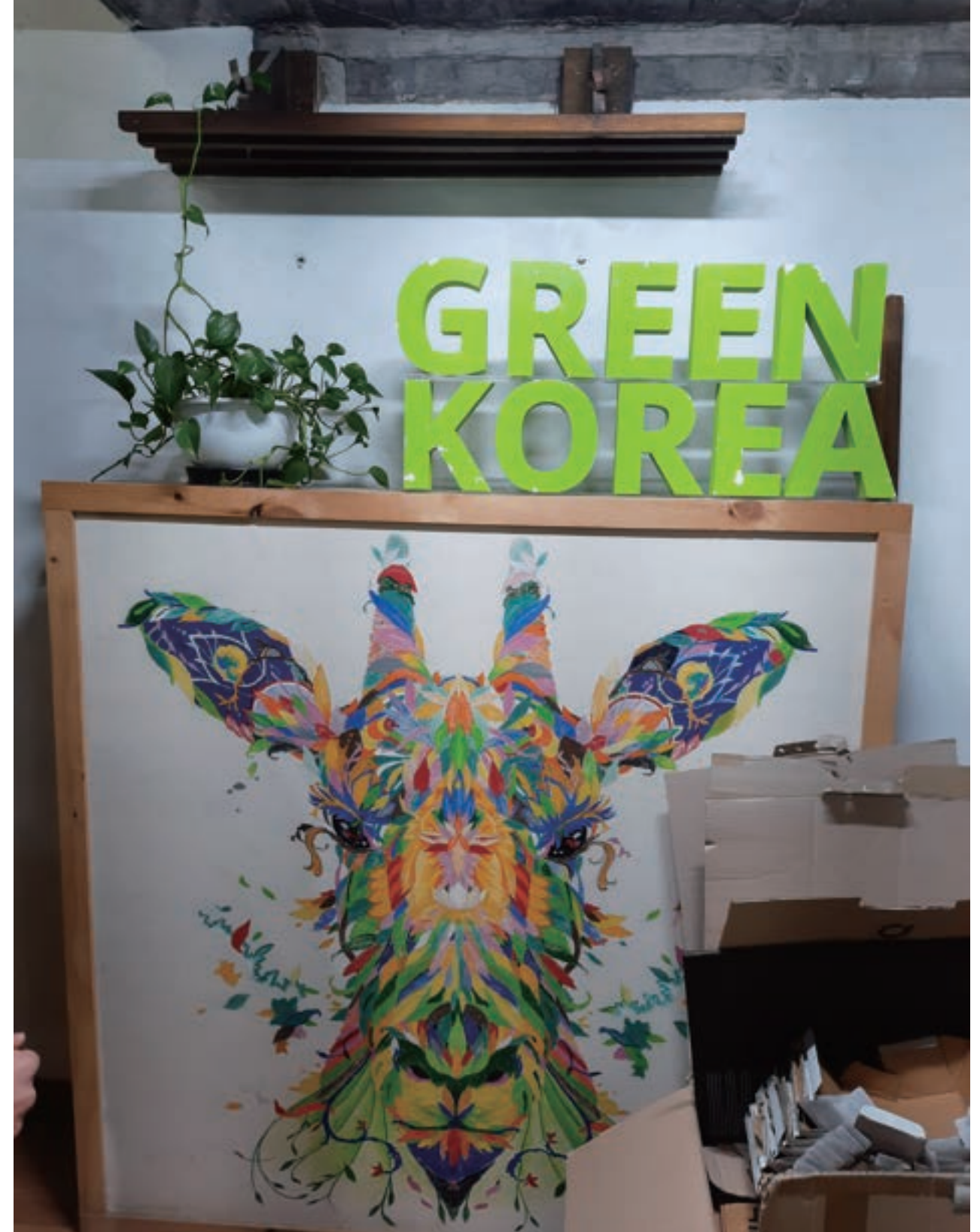
물론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활동도 해야 하고 그것을 정책과 법에 반영하기 위한 보도 자료도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환경 단체에 비해 많은 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저희가 주로 하던 현장 활동에 시민과 다양한 활동가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한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현장에서 함께 활동하기 보다는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기에 예전에 활동하던 것과는 다른 시스템으로 활동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강점과 차별성을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기 위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했었던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의 전환의 노력이 필요한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방식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온라인으로 접하는 방식이 점점 익숙해져가고 있어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온라인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활동이 우리의 운동방식들이 거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온라인 활동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되, 우리가 유지하던 현장의 방식들도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져 꺾이기만 남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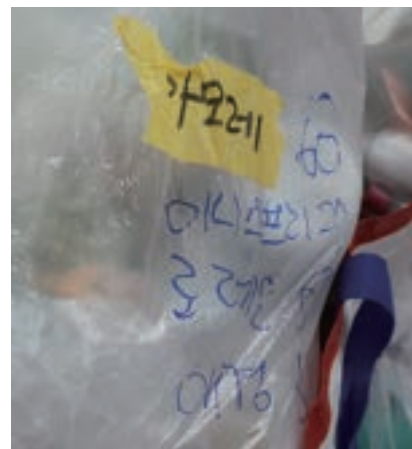
녹색연합은 기후행동팀, 자연생태팀, 에너지전환팀 등

다양한 파트로 나누어져서 활동하지만 결국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 평소에도 다른 팀들과 협업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각각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지만,

당연히 다양한 부분에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팀은 다른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래에는 자연생태팀에서 기후위기로 고사 당하는 식물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연결되어 있기에 함께하여 콘텐츠를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생태에도 기후위기로 다양한 종들이 위협받고 있기에 그 팀과도 협업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기후위기팀은 기후정책이나 시민들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일을 하면서 다른 팀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일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당연히 겹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우리 수도자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식생활의 변화를 갖고자하는 등의 작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환경과 기후위기에 도움이 되나요?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적인 실천만으로는 모자르다고 봅니다.

기후위기의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자주 하는 이야기로, 그레타 쿤베리는 기후 파국을 막을 수 있기에는 6년 정도 남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간은 더 이상 개인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속도는 아닙니다.

개인의 실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나서 사회경제시스템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부나 기업은 일반 시민들이 관심 없는

이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현재 기후위기가 부동산 같이 민감한 이슈는 되지 않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인식할 수 있는 이슈가 되려면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압박하고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모두가 기후위기에 대한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개인적 실천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시스피라시라는 해양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가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전달이 되지 않던 기후위기나 환경 위기에 대한 것들이 영상을 통해서 이해가 빠르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텀블러를 사용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실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환경에 관련된 영화나 책, 포럼 등을 함께 보고 활용하여 감수성을 키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완강히 반대하는 편입니다.

환경부나 정부기관에서 행동의 변화의 활동은 하지 않고 캠페인과 메시지만을 내는 것은 반대합니다.

저희가 환경부 앞에 자주 가서 1인 시위를 하며 지켜본 결과, 요즘 환경부가 플라스틱 챌린지를 하고 있지만 환경부 직원들은 점심 식사 후 커피를 가지고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정작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정작 제일 먼저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 곳에서 활동은 하지 않고 캠페인만 하는 것에는 반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제도와 정책만 놓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 제도와 정책은 국제사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파리 협정의 1.5도를 낮추는 목표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 다른 유럽 국가들은 탄소감소를 위한 명확한 목표치가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제도에는 명확한 목표치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회경제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에 그렇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기는 쉽습니다. 30년 이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면 2030년에는 그 절반을 줄이겠다는 것도 함께 제시되어야 하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2030년 목표는 이제 9년 남았기에 쉽게 세팅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철강이나 자동차 사업 등 당장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파리 협정에 비준한 2030년, 2050년 목표를 유엔에 제출했어야 하지만,

2050년 목표는 제출하고 2030년 목표는 아예 미치지 못하게 제출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명확한 목표치가 들어가는 제도, 법률 등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국이나 독일의 다른 유럽 국가들은

정확한 목표 달성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법이 튼튼해야 현장에서 작용하여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기본법이 없기에 어떠한 제도를 제시하여도 발의되고 제정되기 어렵습니다.

현재 기후위기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고 심사하는 과정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비하고 여전히 2030년에 대한 목표치는 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민으로서 그런 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부동산 문제 같이 당장의 생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보다 기후위기는 훨씬 거시적인 생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하고 제도변화를 위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부분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에 목소리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이

많아야 정부와 기업이 신경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제도는 변하지 않아야 하기에

단지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이벤트를 하고 선물을 주는 수준에서 유지하고자 합니다.





사회전반적인 변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생태적 감수성이 무뎠을 때 어떻게 극복하나요?

감수성이 무뎠다는 이유는, 감수성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도 하기에 단기간에 바뀌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감수성이 무뎠다는 것에는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는 일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일이지만 기후위기가 가슴으로 다가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로 다가와 실무적인 일들을 진행할 때 감수성이 무뎠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해 저에게 다짐한 나의 키워드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입니다. 밸런스를 의식적으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이 많아도 조금이라도 책을 읽으려고 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등의 노력을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사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만 일하고 있을 때 무력감을 많이 느끼고 그것을 스스로 탈피하기 위해 조금씩 노력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가톨릭 수도회는 많은 인원이 있는 큰 집단이기에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일단은 교류가 더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활동할 때 가톨릭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류가 많아져 공감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많아지면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단순한 것이지만 저희의 활동에 함께 참여해주고 목소리를 더해 주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대의 기본일 것입니다. 소통을 통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왕성한 교류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감수성을 나누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종교계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사회적으로 관심 있는 이슈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기후위기를 위한 활동이 젊은이들의 힙한 문화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태적 감수성일 키우는 영화, 도서 소개

시스피라시(영화)

상업어업이 어떻게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지 고발한 다큐멘터리이다. 생태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영상이기에 꼭 시청하면 좋겠다.

탄소사회의 종말(도서)

관점의 전환과 생태적 상상력을 다양하게 키울 수 있고, 기후위기를 통한 인권의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기후정의(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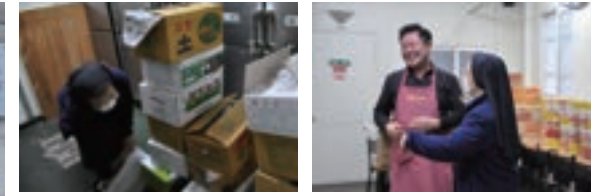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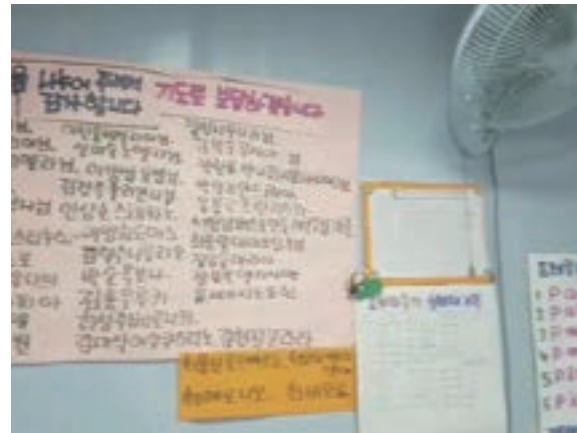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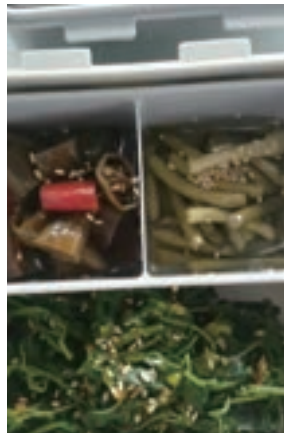
기후위기에 대한 시급성을 절실하게 느껴 행동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야기를 하는 책이기에 함께 읽으면 좋겠다. 이 책의 수입금은 기후위기를 위하여 활동하는 활동가의 활동비 및 그들의 재판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선한 영향력과 선한 의지가 모이는 장..

소비녀들도 이웃의 생존을 위한
사랑의 실천을 멈추지 않습니다.



소비녀 밥꽃



하상바로로의 집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가능성을 연습니다.

지배층이 모든 것을 해 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기대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과정과 변화를 계획하고 실현하는
공동 책임이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사회를 되살리고 지원하는 데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형제자매라는 것을 표현하고,
증오와 분노를 조장하는 대신 다른 이들의
역경의 아픔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또 다른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우연히 지나가던 그 사마리아인 행인처럼,
쓰러진 사람을 받아들이고 통합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꾸준히 지치지 않고 노력하는
민족과 공동체가 되려는 자발적이고 순수하고 단순한
바람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모든 형제들> 77항

내적인 대전환..

생활글과 농부 소비녀

김선미 니꼬데모 소비녀

씨
(2009. 10. 31.)
하느님은
이 세상에
예수를 뿌렸다

윗글 '씨'란 생활글은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전공과정, 생태농업과) 2학년 때
동료가 가을 추수를 끝낸 빈 논에, 그동안 곡식을 내어주어 감사하며
내년을 위해 퇴비를 정성스럽게 뿌리는 것을 보며,
성경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떠올라 썼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삶을 되돌아보며 농부를 꿈꾸고 꿈이 이루어져 꿈을 살며
죽을 때까지 농사짓고 죽어서도 농사짓고 싶은 나를 보며 '씨'란 생활글에
덧붙여 다음과 같이 썼다.



씨 - 예수와 농부 (2020.11.3.)

하느님은
이 세상에
예수를 뿌리고

예수는
내 마음에
농부를 씨 뿌렸다.

생활글

풀무원농업고등기술학교 다닐 때 생활글을 쓰기 시작했다.
생활글은 하루에 있었던 일, 생각, 느낌을 사실 그대로 적는다.
생활글을 쓰면 미처 몰랐던 일을 알게 되기도 하고, 깨닫게 되기도 하고,
영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일주일에 한 번 수업 시간의 과제로 주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게 되었는데, 선생님과 동료들과 함께 읽고 나누다 보니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동료들과 정들었다.
이렇게 매주 하다 보니 일주일에 하나 쓰던 생활글이
일주일에 두 개, 세 개가 되곤 했다.
그러다 또 하루에 하나 쓰게 되고 어느 때는 하루에 두세 개를 쓰기도 했다.
이렇게 몸에 밴 생활글 쓰기는 학교를 졸업했어도 계속 쓰고 있으니
생활글 쓰는 게 '생활'이 된 것이다.

생활글을 쓰기 위해서는 하루를 되돌아보며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용서를 청할 부분은 용서를 청하고, 용서를 해야 하면 용서를 하고,
눈물이 나오면 울고, 웃음이 나오면 미소 짓거나 혼자 킁킁거리기도 한다.
즐거우면 즐겁게, 슬프면 슬프게, 행복하면 행복하게 하루를 '더' 살아간다.
하루 뿐만이 아니라 하루가 이틀이 되기도 하고 사나흘이 되기도 한다.
생활글을 쓰면 자신도 모르게 생활글처럼 살 때가 있다.
생활글이 삶을 움직인 것이다.

어쩌면 내게 생활글은 '기도'인지도 모른다. 글을 쓰면 나만을 고집하지 않고,
너만을 추키지 않고, 서로 보완하며 우리의 길을 간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지난 생활글을 정리하며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한번 더 살게 되었고,
어제 오늘 내일은 모두 '오늘'임을 확인했다.

오늘도 '오늘'을 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생활글¹⁾을 쓰고 있다.

봄비와 주님 (2013. 4. 24.)

봄비는
씨를
싹 틔우고

주님은
영혼을
싹 틔운다



똥 누듯 (2013.6.7)

똥 누면
속 시원하듯

회개하면
마음 편하다

1) 2021년 6월 현재는 관구 본원 3조 수녀님들과 함께 정원 텃밭 농사를 지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글 나눔을 하고 있다.

텃밭에서 처음 듣는 말 (2013. 6. 20.)

가타리나 자매님이 텃밭에서 일하신다. 작물들은 다 잘 자라고 있다. 그런데 오이가 병들어 잠이 오지 않는다 하신다. 난황유를 2번이나 뿌렸지만 별 효과가 없어, 얼마 전에 성수를 뿌렸다 하신다. 웃음이 절로 나온다.

풍랑을 몇게 하시는 예수님 : 루가 8,22-25 묵상 (2019. 12. 5.)

내 안의 주님이
주무시면
풍랑이 일고

내 안의 주님이
생활하시면
풍랑이 잠잠해진다

예수님의 시소 : 마르 14,43-15,47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묵상 (2020. 2. 13.)

예수님의
외면은
수난과 죽음

예수님의
내면은
행복

예수님의 시소
중심은
침묵

눈을 감으면 (2013.2.18.)

눈을 감으면
마음이
보이고

살며시 감으면
마음을
넘는다

농부 소비녀(農父小婢女)의 농사

2000년도에 ‘우리나라 농촌 현실’에 대한 강의를 듣고 우리 농촌을 살리고자, 흙을 살리고자, 환경을 생각하며 농부를 꿈꾸었다.

8년 후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를 입학하여 2년 동안 기숙사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인문학을 공부하며 농사를 배우고 실습하였다. 학교를 졸업하여 2010년부터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다.

그동안은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었다. 음식물 찌꺼기와 오줌과 똥으로 퇴비를 만들어 거름으로 사용하여 화학비료를 주지 않으며, 비닐 멀칭을 하지 않고, 농약을 하지 않고, 제초제를 뿌리지 않고, 농기계가 아닌 농기구로 농사를 지었었는데, 2019년에 자연농법을 시작했다. 자연농법은 너무 힘든 것이라는 생각에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지레 겁먹었다. 고수 농부들만이 짓는 것이라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의정부교구 김규봉 신부님께서 이제는 자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며 생태계를 살리는 길이라 하셨다. 맞는 말씀이지만, 하나의 이상이라 생각했다.

어느 날, 신부님께서 자연농법으로 농사짓는 농장을 방문하신다고 하시어 함께 갔다.

선생님의 말씀 들으며 농장을 둘러보니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 이미 자연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자연농법은 가능한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고 자연의 순리에 맡기며 자연을 따르는 재배방법이다. 땅을 갈지 않고 풀과 벌레를 적으로 여기지 않으며, 산에서 숲에서 동식물들이 많은 생명과 함께 자라듯이 농작물이 많은 생명과 함께 어우러져 자라도록 농사를 짓는다.

수녀원에서의 밭농사

나는 농부를 꿈꾸었고 꿈이 이루어져 꿈을 살아가며 오늘도 농사를 짓고 있다. 수녀원 본원에서 농사를 짓는다. 농지는 수녀원 안에 64평의 풀 텃밭(풀이 있는 텃밭), 정원 텃밭, 걸어서 10분 거리의 수풀 밭(500평)이다.²⁾



풀 텃밭은 농사를 원하시는 수녀님들께 분양해 드렸다.

농지가 수녀원 안에 있고 크지 않아서 할머니 수녀님들과 환자 수녀님들이 부담 없이 농사짓는다. 틈만 나면 작은 풀 텃밭에 가서 보고 기도하고, 서로 도우며 일하며 즐거워하시고 풍요로워하시는 듯하다.

김 수녀님은 농사를 짓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못 짓는다고 하셨다.

2019년에 대문 밖, 빈터에 호박을 심고 애호박이 예쁘게 달렸을 때 수녀님께 수확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니 웃으시며 그것은 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수녀님은 호박을 수확하는 농사를 지으셨다.

그 호박으로 수녀님과 이야기를 하다 토마토를 좋아하시는 것을 알고

2020년에는 풀 텃밭에 토마토를 심어 수녀님이 수확하셨다.

토마토 대를 지주에 매어주고 결순 따는 것을 못하여 농사를 짓지 않겠다 하셔서, 토마토 몇 그루라도 농사지어야 농민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니 하셨다. 토마토를 수확할 때 기뻐하셨고 나누며 흐뭇해하셨다. 토마토 다음으로 국거리용 배추를 심었는데 씨를 뿌리자마자 말씀하셨다.

2) 2021년 6월 현재는 농지가 늘어났는데, 기존의 정원 텃밭 옆으로 400평 규모의 텃밭이 더 생겼다. 이 텃밭을 본원 공동체의 모든 수녀님들이 함께 가꾸고 일귀서 자연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방법을 알려 줘요!’ 나는 이 말을 듣고, 놀랐다.

함께하며 알려드리자 그다음에는 혼자 하셨다. 또 할머니 송 수녀님은 혼자 녹두를 심으시고 수확하시고 내년 씨까지 받아서 주셨다.

녹두 싹이 나오면 녹두 싹 이야기, 꽃피면 꽃 이야기,

태풍에 쓰러지자 지주를 해 주셨다.

또 농사의 ‘농’자도 모르시는 김 수녀님은 양배추를 심으셨는데 잘 되었고, 이어 팔을 심었는데 팔도 풍년이였다. 그리고 겨울 작물로 보리를 씨 뿌리셨다.

수녀님과 마주치면 신나시어 작물 이야기로 웃음이 가득하시다.

수녀원 정원은 나무 죽은 곳에 농작물을 심고, 풀 텃밭과 같이 수녀님들께 분양해 드리니 정원 텃밭이 되고 있다.

나무와 꽃과 농작물과 연꽃과 벌 나비 벌레 개구리 두꺼비와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니 생동감이 있고 정겹다.

정원 한 모퉁이에 토종 오이를 심고 의사의 처방이

평지 걷기인 수녀님께 토종 오이를 부탁드렸다.

수녀님은 매일 산책하시면서 오이를 관찰하고 기도하시며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알려주셨다. 신비스러워하시며 조카를 만나도 지인을 만나도 그 토종 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셨다.

수풀 밭에서는 마음껏 농사를 짓는다. 일이 많을 때는 도움을 청한다.

2020년에는 완두콩 따기, 감자 캐기, 팔 수확을 할 때, 도움을 받으며 공동체에 감사했고 수녀님들은 오히려 좋은 체험이 되었다고 하셨다.

감자 캐 때 감자가 나오면 신기해서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며

얼굴에 땀과 웃음이 가득하셨다.

또 학생 수녀님들과 힘이 필요한 수녀님들과 도와주고 싶은 수녀님들은 시간이 될 때, 언제든지 밭에 와서 땀 흘리며 참 먹으며

이야기하며 깔깔 웃으며 놀며 일하였다.

자연에서 땀 흘리며 일하여 속 시원하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고마워하셨다.

여러 사람이 풀 텃밭과 정원 텃밭에서처럼 조금이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것과 수풀 밭에서처럼 농사일을 해보고 싶을 때, 도와주고 싶을 때, 머리가 복잡할 때, 고향처럼 엄마 품처럼 언제든지

쉽게 와서 편히 일하며, 도움을 주고받으며

한숨 돌리며 농사를 체험하는 것이 농사를 짓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도록 농사짓는다.

도시농부학교에서의 논농사

2019년 5월에 의정부교구 도시농부학교 파주 박달산 텃밭에서 자연농법 손 모내기 행사에 참여하여 밭논에 호미로 모를 심었다. 호미로 모를 심는데 밭이 근질근질하여 신을 벗고 양말을 벗고 맨발로 심었다. 밭바닥이 논바닥에 닿으니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 벼농사를 짓고 싶어 5평을 분양받았다. 여름에 김매기를 하고 가을에 벼를 베고 탈곡하여 겨울에 쌀을 받았다. 쌀을 받자 마음 깊은 곳에서 생명이 움터 샘솟는 듯하였다. 그래서 2020년에는 논 한 다랭이 300평을 분양받아 도시농부님들과 신부님과 수녀님들과 논에 못자리를 만들어 볍씨를 뿌리고 호미로 모를 심고 김매기를 하였다. 손 모내기하는 날 못자리에서 모를 뽑는데 모보다 피가 많았고 모와 피가 비슷하여 가려내는데 혼쫌이 났다. 김매기는 혼자 하는 날이 많았으며 허리가 아프고 생각보다 긴 나날이었다. 가을에 낫으로 벼를 베고 탈곡하여 자루에 담으며 수확의 기쁨을 맛보았다. 함께 한 수녀님이 허리가 아파해도 싱글벙글, 마음속에서 솟아 나오는 기쁨을 숨길 수 없었다.

수녀원에서 벼농사가 처음인지라 수녀님들은 못자리부터 관심이 많으셨다. 태풍이 오면 벼가 쓰러질까 봐 걱정하시고, 긴 장마 비에 벼가 빗물에 떠내려가면 어쩌나 노심초사하시던 수녀님들은 도정한 쌀을 보시자마자, 순식간에 눈은 커지고 입을 딱 벌리시며 신기한 표정을 지으셨다. 수녀원에서 첫물이라고 쌀을 회원들과 조금씩 나누고 있다. 또한, 신부님께서도 약 400평 논 한 다랭이를 농사지으셨다. 신부님과는 품앗이처럼 서로 도우며 일했고, 신부님은 벼를 수확하시며, 농부들이 수확의 기쁨을 몇 년을 맛볼 수 있을까? 매년 맛볼 수 있을까? 하셨다. 기후위기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셨다. 그리고 11월 공동체 날에 벼를 도시농부들과 함께 탈곡하고 도정하여 그 쌀로 점심을 해 먹었고 그 쌀을 나누어 주셨다. 나눔에 대한 교육이 말없이 저절로 되었다.



가톨릭농민회 농가 일손 돕기

의정부교구에 가톨릭농민회 대광 분회가 있다.

농민들은 2020년 4월 회의에서 올해는 농사짓기가 힘들다고 하시어 기후위기로 인한 날씨 때문인가 했는데, 코로나19로 농가에서 일하던 이주민들이 연초에 본국으로 돌아가 일손이 없어 걱정하신 말씀이었다.

신부님과 환경 농촌 사무실 직원 2명과 일손 돕기를 시작하자, 이를 본 듯 총원에 있는 수녀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성모성월을 맞이하여 코로나19시대에 성모님께 봉헌할 그 무엇을 찾고 있다고 하였다.

농가 일손 돕기를 추천하여 5월에 수녀님들과 1주일에 3번씩 농가 일손 돕기를 다녔다. 농민들은 수녀님들이라 부담스러웠지만, 무척 고마워하셨다. 수녀님들은 조금이라도 더 도와드리려고 열심히 하시어 농민들은 놀라셨고 수녀님들도 스스로 놀래셨다.

비가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일손 돕기가 취소되는 농가 농민은 할 일은 많은데 하시며,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기도 하고, 수녀님들께서 힘든 일을 많이 하셔서 주님께서 쉬게 해주신다고도 했다. 또, 한 농가 주인은 일하다 넘어져서 다리 3곳을 다치셔서 입원 중이신데 환의를 입고 목발 짚고 오셔서 점심을 해 주신다고 쌀을 씻고 상추를 뜯고 솥뚜껑에 삼겹살을 구워 줄 준비를 하는 것을 본 수녀님이 결국 점심 준비를 하셨다. 수녀님들은 삼겹살을 먹으면서 눈물을 뺀다.

나무가 없어 아궁이에 이것저것을 넣다 보니 연기가 가득했다. 아무튼, 점심을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다. 주인은 수녀님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놀래셨다.

사실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환의를 입고 목발을 짚은 농장주인을 보고 어떻게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총원 수녀님들의 일손 돕기가 끝나자 관구 수녀님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몇 번 다녔다. 수녀님들은 농가 일손 돕기로 농촌체험을 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발농사만을 하다 논농사를 시작하면서 농가 일손 돕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농민들의 생명농업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일손이 없어 절망에 있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주고 도움을 주고 싶었고, 곤경 중에 있는 농민들을 알면서 일손 돕기를 하지 않으면 마음 편치 않기 때문이고,

수녀원의 농사도 농민들의 농사도 농부 소비녀의 농사이고 주님의 농사이기 때문이고, 또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에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일손 돕기를 다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이다.

농가 일손 돕기로 몸은 고되었지만, 이 일을 통하여 농민들과 더욱 가까워졌고,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수녀님들을 보면서 성가소비녀회의 회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항상 함께 해 주시는 주님과 더 친밀해진 듯하다.

기후행동의 피켓팅

농부 소비녀가 농사일을 잠시 멈출 때가 있다. 기후행동 피켓팅을 하는 날.

2020년 6월 말부터 1달에 2번 의정부 기후행동 피켓팅을 나가다가, 9월부터는 '창조시기'를 맞아 우리 지역 하나로마트 맞은편에서 수녀님들과 1주일에 1번 1시간 '소비녀 기후행동'이라는 이름으로 피켓팅을 한다.

수녀원 근처에서 하니 할머니 수녀님들도 함께 하시다 이제는 할머니 수녀님들이 주축이 되었다.

할머니 수녀님들은 의자를 가지고 가시어 다리 아프시면 앉으시기도 한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 옷을 많이 입어야 춥지 않다. 어느 날은 일찍 시작해서 5분 일찍 끝내려 하니 시간은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수녀님들이 지역에서 매주 피켓팅을 하니 반응이 좋다. 인사하는 사람, 성호를 긋는 사람, 손을 흔들어 주는 사람, 차를 잠시 멈추고 최고라고 손짓을 하는 사람 등등 반응을 보이며 힘을 실어주고, 피켓을 보면서 운전하는 분들이 많아 교통사고가 살짝 걱정되기도 한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되어 그 지역의 모든 것이 악몽이었다. 당연히 유기농업도 끝이었다. 이렇듯 기후 위기가 오면 인류의 모든 것이 통째로 악몽이다. 당연히 자연농업도 끝이다. 그래서 기후 위기를 조금이라도 늦추며 살아내려고 자연농법으로 농사지으며, 사람들에게 기후위기를 알리려고 거리에서 피켓팅을 한다. 생태계 파괴로 지구 위기가 오면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철부지같이 생각해 본다. 우리가 생태계를 계속 파괴하면,

태풍 산불 지진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날이 오기 전에 회심하여 순환적인 삶을 살기 위해 피켓팅을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순환적인 삶을 산다면, 온 지구인이 이렇게 산다면 지구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다. 개인이 공동체가 되고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기에 개인의 간절한 회심이 중요한 듯하다. 우리는 2016년 촛불 혁명에서 배웠다. 촛불 하나가 열이 되고, 촛불 하나가 백이 되고, 바다가 되고 산이 되고 나라가 되어 정권을 교체했듯이, 온 지구인이 마음을 모아서 온 힘으로 정성을 다하여 순환적인 삶을 살면 우리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이 희망으로 하느님의 작은 여종인 소비녀(小婢女)들은 기후위기 피켓팅을 한다. 소비녀들이 기후위기 피켓팅을 하듯이 고령으로 사도직에서 물러선 수도자들이 이 피켓팅을 하면 어떨까? 또, 가톨릭은 조직이 잘 되어 있으니 신부님들께서 미사 강론 말씀으로 이 피켓팅을 하시면, 피켓팅을 하지 않고도 30배, 60배, 100배, 하늘나라의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하느님의 꿈 :
루가 2,1-7
예수의 탄생 묵상
(2020. 2. 10.)

하느님의
꿈은
예수님이고

농부 소비녀의
꿈은
온 누리의 생태공동체이다



성가소비녀회 한 지체로 파견되었음을..

전영은 미리암 소비녀

코로나 19로 전쟁 같은 시국에 의료진으로 전장 한 가운데로 들어간 소비녀가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아서도 아니고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단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야 하는 길 위에 있는 소비녀를 만나보았습니다.



코로나 의료 봉사를 자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코로나로 의료인들의 자원을 요청하는 상황을 보며 시대의 절박함을 느꼈고, 응답을 하고 싶었지만 처음에는 입회 후 수년간 경력이 단절된 상태라 망설이다가, 뉴스에서 전공의(레지던트)에게까지 코로나 지원을 요청한다는 소식을 보고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자원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하였나요?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의료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생기면 대한의사협회에서 지원 요청 안내 문자를 보내주었고, 그것을 보고 원하는 곳에 지원신청을 하면 되었습니다. 수도권외의 코로나 선별검사소 같은 경우는 금방 충원이 되었지만 소도시의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시설은 지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족이 있거나 현재 생계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곳에 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충북 음성 외곽의 한 요양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와 수도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저의 뜻을 지지해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낯선 상황에서 저를 신뢰해 주셨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나누어 주세요.

병원에 도착해서 알게 되었지만 제가 간 병원은 본래 감염환자를 보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충북의 여러 정신과 요양병원들에서 환자들이 발생하자 그분들을 수용하고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감염전담병원이 급하게 신설된 상황이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지시에 따라 단시간 내에 만들어진 병원에서는 그야말로 무(無)에서부터 새로운 체계를 잡아나아가야 했고, 또 저를 포함한 현장에 모인 구성원 모두가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었기에 제각각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 조화롭게 의견을 조율해가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번 현장은 저의 전문분야가 아닌데다 이 분야에 대한 경험도 없었기에 다른 의견들을 많이 듣고 따르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최종결정에 대한 책임으로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고, 환자들을 위해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또 한 때 감염자수가 폭증하면서 입원환자와 중환자들이 증가할 때는 인간적 한계를 느끼며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생각했던 것 보다 어려움이 많은 이 현장에 어떻게 제가 오게 된 것인지 의문이 들 때마다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코로나19사태 극복을 청하는 기도'를 이렇게 간절히 드려본 적은 처음입니다.

한 달 간의 체험이 수녀님의 수도생활에 어떤 질문으로 다가왔나요?

한 달 동안 낯선 장소에서 낯선 시간을 자율적으로 살다보니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철저히 따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기 위해 기도생활이 바탕에 굳건히 있어야 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도생활을 어떻게 충실히 유지할 것인지, 또 덕을 습관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자신을 수행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도전은



제가 평온할 때 뿐 만이 아니라 인간적 한계나 불안을 느끼는 순간에도 예측치 못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 저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보다 큰 사랑을 선택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도 많이 했는데, 결국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느님의 뜻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어진 기간동안 만났던 부서지고 상처난 하느님 백성들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제가 만난 분들은 정신과 환우 분들이었습니다. 정신과 입원 환우라는 사실 자체로, 유대인들에게 배척받던 이방인들처럼 보이지 않는 선으로 구분되어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유난히도 맑았던 그분들의 눈동자와 순수했던 표정입니다. 코로나 공포에 시달리지도 않고 괜찮은 척도 하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때로는 불합리한 상황조차 담담히 받아들이며,



그리고 반가운 웃음으로 저를 맞아주시던 그분들이
저보다 더 하늘나라에 가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녀님이 생각할 때 전염병과 기후위기 상황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요?

고통 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딱히 누구를 짚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라봐온 것처럼 사회의 구조적 부조리로 인해 심화되는
분배격차와 재분배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가난한 이들은 언제나
위기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염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고,
가정 경제에도 위기가 찾아오며 따라 가족들이 한자리에 머무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의 혼란과 와해로 방황하는,
그래서 사회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 또한 시급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이 지닌 신성한 의미가 상실된 이 시대에는 아이도, 청소년들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두가 피해자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이는 어린 아이들일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법도,

사랑을 주는 법도 잃어버린 부모와 아이들에게
성가정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체험을 마치면서 수도회 회원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막막한 순간에도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희망을 잃지 않았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순간들을 돌이켜보니,
이제 그 한 달이 저에게 파스카의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성가소비녀회의 한 지체로서 파견되었음을
항상 떠올리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 성가소비녀회의 일원으로 마음으로 늘 함께함을 느꼈고,
수녀님들의 기도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수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은 주님의 작은 정원



백수연 소피아 소비녀

유난히 긴 장마가 끝났지만, 이 글을 쓰는 지금도 태풍으로 인해 며칠째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다.

내가 돌보고 있는 화단의 꽃들을 살펴보지 못한지 좀 되어서 상태가 어떤지 많이 궁금했으나 우산을 쓰고 돌아다니면 너무 유난스러워 보일 것 같아 참고 있다.

이렇게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항상 내가 가꾸는 화단과 함께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화단을 가꾸게 된 것은 종신서원 후 본원으로 소임을 받게 되면서부터였다.

종신서원 전에도 계속 본원에 있었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 아마도 '땅'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더 적합한 것 같다 -

본원 공동체에 이런저런 변화가 생겨나면서 마침내 나의 '땅'이자

'정원'이 될 곳을 나누어 받게 된 것이다. 꽃을 좋아하기에

화단을 가꿀 수 있기를 그동안 얼마나 바래 왔었는지!

설레는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힘차게 이 일을 시작했고

다행히 아직은 열정이 식지 않은 것 같다.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꽃을

가꾸면서 매일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이것도 큰 욕심이었다. 유난히 길었던 2020년의 장마를 겪고 난

지금, 처음에 생각했던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화단보다 지금 있는 꽃이라도

잘 크기만을 바라게 되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내가 화단을 통해서 느끼고 알게 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화단을 돌보았던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느님께서 처음에 내가 바랐던 것보다 훨씬 많은 선물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화단과 함께하며 벌어졌던 소소한 사건들이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 하나둘씩 쌓여 가고 있는데, 특히 나에게 참 놀라웠던 경험 하나를 나누고 싶다.





누구나 그렇듯 나도 내가 가꾸는 화단에 꽃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피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화단에 꽃을 풍성하게 피우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솔직히 돈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시간과 돈이라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방법이 꺾꽂이다. 하나의 식물에서 가지를 잘라 꺾꽂이를 하고, 잘 돌보면 식물을 늘릴 수가 있는 것이다. 식물을 가꾸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두 어느 정도는 꺾꽂이병(?)에 걸려 있다. 식물을 풍성하게 늘리기 위해서 무엇이든 가지나 줄기를 잘라다가 일단 모래나 물병에 꽂아놓는다. 나도 이 병에 걸려 있는 상태라 내 창가는 항상 꺾꽂이, 물꽂이 한 식물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꽃은 가지 모두 다 잘 뿌리를 내려서 화단으로 갈 수 있을지 결과는 하느님만 아시는 것. 나는 최선을 다해 돌보아줄 뿐이다. 꺾꽂이 중에서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장미 꺾꽂이이다. 장미를 너무도 좋아하기에, 장미 정원을 항상 꿈꾸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돈이 필요하다. 장미는 상당히 비싼 식물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미 가지만 어디선가 잘라와 꺾꽂이해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돌보아주면 공짜로 장미를 한 그루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화원에서 얻어온 미니 장미 몇 그루를 애지중지 키우고 있지만, 아직도 내가 꿈꾸어왔던 풍성한 장미 정원을 이루기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자연스레 장미 꺾꽂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꽤 많은 정보를 검색해서 살펴보고는 했다. 이렇게 계획만을 계속하다가, 올해 봄 외출을 틈타 밝히기는 조금 부끄러운 방법으로 드디어 몇 개의 장미 가지를 구했다. 구한 가지에 피었던 장미가 참 아름다웠기에, 나는 꺾꽂이에 상당히 정성을 들였다. 물에 하루 정도 꽂아서 물을 충분히 공급한 뒤, 꺾꽂이용 모래도 사서 거기에 조심스레 가지를 꽂고 매일매일 물을 갈아주며 돌보았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보살폈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검게 썩어가는 가지가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다. 꺾꽂이 한 가지에 이런 검은 점이 생겨나면 - 마치 암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인데 - 그 가지는 반드시 죽게 된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죽은 가지들을 보내야 했고, 결국 하나의 가지만 남게 되었다. 이 마지막 남은 가지는 생명력이 강했던 것인지 잘 버려주더니, 뿌리도 몇 가닥 내리고 급기야 새 잎눈을 틱워 올렸다. 아주 약간 커진 잎눈을 발견하고 나는 방에서 혼자 환성을 질렀고, 너무 기특하게도 잎눈은 며칠 사이에 빠르게 자라서 마치 무언가를



힘차게 뿔어내듯, 여리고 예쁜 새싹을 키워냈다.
 이때가 아마도 꽃을 기르기 시작하면서 가장 기뻐던 순간이었을 것이다.
 얼마나 희망에 부풀었던지.. 내가 키워낸 장미가 생긴다는 그 기쁨은
 어디에도 비할 수 없었다. 마치 내가 뱃속에 품고 키워낸 자식을 보는 것처럼,
 대견함과 사랑스러움 등등 여러 가지 감정에 뒤섞여 장미 가지가 틔워낸
 새싹을 바라보며 그 여리디 여린 잎에서 느껴지는 강인함을 만끽했다.
 그렇게 한 일주일의 지난 후 큰 화분에 옮겨 주고 싶다는 생각에
 신나게 새 화분과 흙을 주문했는데, 이것이 좀 잘못되었던 것 같다.
 어찌면 너무 시기 상조였는지도 모른다. 옮겨 심고 나서 이틀 후,
 가지가 살짝 말라가면서 검게 썩어가는 부분을 발견했을 때
 정말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남들이 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나에게게는 보통 일이 아니었다. 아마도 가족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이런 느낌일까?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어서 이런저런 고민을 했다.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근거는 없지만 나름대로 응급처치라고 생각하며
 땅에 옮겨 심고 초조하게 바라보았는데 결국 며칠도 지나지 않아 가지 전체가
 검게 변하더니 새싹도 시들어버렸다. 장미 가지는 결국 크지 못하고 죽었다.
 나는 검게 변해버린 가지를 뽑아서 그 자리에 고이 묻어주고,
 새싹이 시들기 직전에는 그 일부를 잘라 와서 책 사이에 끼워두었다.
 마치 죽은 연인의 머리칼을 간직하는 것처럼..
 이런 경험을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내가 소중히 여기고 기른 생명이 죽음을 앞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는 것
 그리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처음엔 많이 심란했지만 지금은
 이 경험 자체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 아닌 다른 존재에게 - 특히 말을 하지 못하는 - 내 모든 마음을 기울여
 그 존재의 상태를 느끼고 공감하며 함께 했던 과정이 사람이 아닌
 '식물'과 '땅'이었기에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지며,
 이 경험은 아마도 나의 수도 여정에서 특별하게 자리 잡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내 마음이 아직은 모든 생명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의 딜레마이다.
 화단을 짓밟고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개와 고양이들은 여전히 밍다.
 지금도 가장자리에 무언가 죽어있으면 나는 일단 우리 집에서 키우는
 천방지축 개들을 의심한다. 또 꽃밭이 어지럽다고 느껴질 때
 추호도 망설임 없이 무엇이든 이를 잡듯이 뽑아내는 모습이 나에게 있기에..
 하지만 언젠가는 그분께서 나에게 또 새로운 경험으로
 가장 좋은 답을 주시리라 생각한다. 지금도 조금씩 화단과 함께하고
 땅을 돌보며 내 주변의 존재들과 '언어'가 아닌 마음으로 바라보며
 소통하는 법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이 보잘것없는 발걸음이라도
 조금씩 내 마음속에 쌓이게 된다면 예전보다는 좀 더 그분께서
 원하시는 모습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나와 연결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행복의 하루’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거창하지도 않는 이 소소한 문장을 완성하는 하루는 쉽지 않다.
 ‘함께’를 ‘행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와 ‘너’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우선 살펴보아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너가 쉽게 취하는 생각, 의지, 욕구, 성향 등을 멈추어야 한다.
 역시나 ‘함께’는 한쪽만 멈춘다고, 희생하고 맞추어 준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의 최선의 배려와 희생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나의 행동을 공동체에서 무시당한다 하여도
 선한 행동은 멈추지 않고 꾸준히 행해야 함을 알아야 했다.
 공평은 무엇이든 똑같이 1/n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저마다의 1/n이라는 기준이 달랐고 서로의 역량이 달랐으며
 가지고 있고 사용할 수 있는 힘의 총량도 달랐다.
 그러기에 서로 내어놓음, 내어줌의 양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내 기준의 1/n을 고집한다면 공동체 안에서 누구는 희생심이,
 누구는 사랑이, 또 누구는 눈치가 없는 존재가 생겨나게 되고 그런 찰나의 감정이
 소소한 행복을 무너뜨리는 씨앗이 된다는 것도 알아차려야만 한다.

나와 너는 서로의 다양성을 품으며

박해원 루디빈 소비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수도자로
 살아가기에 쉽게 이야기 한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는 ‘수도 삶’이라고..
 그 답과 동시에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
 그럼 개인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수도 삶은 무엇인가?
 각자의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 나에게 적용되는 개인적 질문이기에





함께의 행복은 소통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야 했다.
 감정(공감)의 소통, 이해의 소통, 함께 해야 하는 행동의 소통 등을 통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는 행복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워낙 다양한 성향과 성격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다 보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일, 편안한 환경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행해졌지만,
 그렇지 못한 반대의 사람, 상황, 환경에서는 피하거나 숨지 않고
 애써 소통하는 연습, 노력이 필요로 했다.
 그러나 함께 행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연습이다.
 인간은 단 한 사람도 감지 않기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다채롭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은 가지지 못할 수도,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비교할 필요가 없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얻으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가지게 되었다. 누구도 모자라지 않고 넘치지 않는다.
 불행은 나와 타인을 비교할 때 생겨나는 감정이었다.
 나와 너의 비교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고유하듯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타인과 달리 고유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서로에게
 기꺼이 나눌 수 있고 기쁘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노력의 산물로 드디어 '나와 연결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행복의 하루'가 완성된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해서는 완성되지 않는
 이 소소한 문장은 곧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느님으로 향하게 되어
 결국 나와 너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 나의 삶의 가치가 되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삶의 가치는 결국 나라는 존재를 완성하게 되고
 하느님으로 향하는 나의 행동은 분명 나와 또한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선(善)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느님의 연민을 나의 연민으로..

“사회적 사랑”은 사랑의 문명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랑의 문명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부름 받았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편적 역동성을 지닌 애덕은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애덕은 그저 공허한 감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길을 발견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사회적 사랑은 “현대 세계의 문제들에 새롭게
접근하는 방식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사회 구조들과 사회 조직, 법적 체계들을
내부로부터 쇠신할 수 있는 힘”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모든 형제들> 183항

첫 베트남 소비녀들이 서원을 하고 본국으로 소임을 갔습니다.
베트남 글은 다른 문화 안에서 성소를 지켜가는 지청원 자매들과 수녀님들,
그리고 베트남의 가족들도 소비녀지로 초대하는 작은 몸짓입니다.



홍유리 파라 소비녀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 생태적인 삶의 방식? 본래 창조된 모습으로의 회복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시려는 예수님의 움직임은
나에게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이었고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어찌 내어줄 수 있냐고 따져 묻는 것으로 나의 여정은 시작되었다.
내어 줄 수 없는 마음, 머리로만 응답하고 있는 나를 보게 하시며 내어 놓으라는
예수님의 요구에 대한 거부감은 어떤 새로움으로 부르시는 초대로 받아들였다.

1차 실습지, 배론 생태 공동체에 파견되었을 때,
단순 노동 안에서 노동의 가치를 전환시키고자 했던 단순한 나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하느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예수님을 닮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땅의 너그러움에 비해

확신하지 못하는 모호한 목적을 위해 땅을 파고 풀을 뽑으며
씨름하는 나를 보면서 스스로를 착취하고 학대하고 있는
삭막하고도 황폐한 나를 발견하였다.

‘땅에 강생하신 하느님을 우리가 시중든다.’고 하시는 수녀님의 말씀은
내 몸이 너무 힘들어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땅보다도 가난한 나를 만나는 매일의 시간은 고통스러웠다.

어느 날 산책길에서 3번이나 나를 부르며 도움을 청하는 아저씨를
‘신천지-코로나’라는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며 거리를 두고 있는
나의 모습을 성찰하며 타인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경계하며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가난을 또다시 만나게 되었다.
‘사람이 용서가 안 된다’고 말하던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는
가난한 나와 가난한 너의 관계성이 망가져 있는 우리 인간의 표본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개인의 고유성을 보존하고 서로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타이틀의 강조로 심화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인간중심주의, 나와 너의 분리,
이분법적 사고는 땅(자연)과의 관계에서도, 노동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결국에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일상을 알아차리며
내가 진짜 나로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하는 시간이었다. 3개월의 시간동안 동물,
식물 그리고 사람 안에서 나는 조금씩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었다.
자연에게 점점 나를 내어줌으로써 보다 인격적인 친교를 맺을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 나 또한 조금씩 행복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실습지에서 17차 수도회 총회 나눔을 하면서, 생태적인 회심이 절박하게
요구되는 이 시대에 ‘생태적인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이라는 요청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진짜 ‘생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더 깊이 알고 싶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먼저 변해야 했기에 변화를 위한 희망으로 2차 실습지,
홍동 마을 공동체를 선택했다.

그곳에서 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노동을 하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친교를 나누는 생활이 나의 주된 일이었다. 풀무학교(전공부)와 풀풀농장,
꿈이 자라는 뜰, 함께 먹는 식구들 등에서 일을 하면서 관계를 형성하였고,
일이 끝난 후에는 비폭력대화 교육을 들었다.
마을 소모임(녹색평론, 페미니즘, 민들레 읽기모임 등)에 다니며 친교를
맺는 활동도 했다. 틈틈이 환경연합에서 주최하는 해양쓰레기 줍기 연대에도
참여했고, 여농 센터와 밝맑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공유지 강연회, 나무강의,
누카스케, 채식각두기워크숍, 빗물 저금통 설명회 등에 참석했다.
단기로 마르쉐 농부시장 참여, 젊은 협업농장 체험, 예산모니터링 교육에도
참여했다. 그곳에서 막 생활을 시작했을 때, 첫 번째로 소개받았던
소모임은 ‘비폭력 대화’모임이었다. 이미 그 마을에서 오래전부터
교육을 받은 것을 토대로 곳곳에서 연습모임이 활성화 되고 있었는데
그 소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비폭력대화 교육을 이수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들과 함께 교육을 받았다.
이미 여러 차례 같은 수업을 반복해서 들으며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과,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연습하며 실생활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결(공감)’은 홍동 마을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었다.
비폭력대화는 ‘연결’에 초점을 둔다. 연결을 통해 서로의 욕구(need)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서로의 욕구를 평화롭게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는 것이다. 상대방이 무엇을 하느냐(행동)가 아니라,
어디에 주의(의식)를 두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가난한 집에서 맴이로서 태어난 나는 매일 매순간 동생들을 돌보아야 했고,
배려해야 했으며 무겁게 책임져야 했던 첫째로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구와 감정들을 부인하고 억압하며, 그것들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조차
부정적으로 여기며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들었던 말은
‘너는 너무 이기적이야!’라는 말이었다. 내 안에서 상처가 되어
끓어 있었던 그 말이 교육을 받던 중에 튀어나왔다.
내가 했던 모든 선택들이 다 이기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채워진 적이 없었던 나의 억압된 욕구와 감정들이 한데 뒤섞여 충족되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한 채 불만으로 튀어나오며 더 이기적인 모습으로

채워 넣으려고 했던, 그래서 내어줄 수 없었던 나의 가난의 근본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나의 경계를 지키지도 못하면서 동시에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는 상대적인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구와 감정들을 인식하고 자기 공감을 통해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끓었던 상처들이 서서히 아물기 시작하였다. 치유되기 시작한 것이다.

강생하신 예수님을 닮아 타자로 향하는 사랑을 위해서는 무조건 경계를 허물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나의 계획과 달리 기본적인 경계를 세울 수 있을 때 비로소 나의 모든 경계가 허물어질 수 있음을, 그로 인해 온전히 타자에게로 향하는 사랑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공감을 통해 찌그러져 있던 생명에 힘을 불어넣는 경험을 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마음의 높이를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찌그러져있던 나의 모습들이 본래 창조된 모습으로 제 자리를 찾는 것을 느끼면서 하느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 부서지고 상처 난 나의 찌그러진 모습들을 바라보고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다.

가난한 나를 살리고 가난한 너를 살리며 생명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생태적인 삶의 방식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느님 창조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강생하시는 방법이면서도 창조된 인간으로서 아버지 하느님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의 방식이 아닐까.

한편, 농장에서 일손 돕기 하는 것을 주된 노동으로 삼았기에 여러 다양한 형태의 농사 방식을 체험할 수 있었는데, 단편적으로 대농을 하는 사람들과 소농을 하는 사람들이 노동을 하는 방식과 어디에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는지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었다. 땅의 힘을 믿고 생산량(돈)이 아닌 자연의 가치, 사람의 가치, 열매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자연과의 공존을 선택하고 살아온 농부의 신념과 가치는 나를 배우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노동의 가치는 그 일에 있지 않고 그 일을 하는 주체인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일을 하면서 맺는 친교의 시간 속에 사람의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노동의 목적이 '사람의 행복'에 있으면서도 '하느님 나라'를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의식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움직이는 것을 싫어했던 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한 번도 나를 되돌아보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 억눌려 짓밟혀진 나의 그림자가 울고 있었던 것이다. 나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면서 일을 하니 훨씬 자유로워진 나를 만나게 되었고 실생활에서 일할 때마다 올라왔던 감정들로부터 자유로워진 나를 깊이 느끼며 노동의 가치가 그리스도적 관점으로 전환되는 하느님께 감사한 시간이었다.

참된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고 본래 창조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고 '나'를 넘어서 이제 '타인'의 존엄성도 존중되어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실습을 통해 가진 것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모은다는 것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닫게 되었다.

내 손에 쥐어진 그 작은 조각의 빵으로, 무리 지어 앉은 군중들 앞에 걱정스런 마음으로 서 있던 나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타인들의 역량을 간과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혼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작은 나눔이 모아졌을 때 얼마나 큰 힘과 기쁨이 될 수 있는지를 거듭해서 보여주셨다.

역지로 만들어낸 의무로서의 허구의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 자신이 됨으로써 저절로 나 자신이 사라지는 자기 비움의 상태, '진짜 나'를 찾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예수님과과의 일치는 내가 걸어야 할 강생의 길이며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낮선 곳에서 두려움과 걱정을 가득 안고 예수님이라는 땅에 뿌리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부르심의 여정 시작부터 끝까지 하느님께서는 결코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음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느님 안에서 본래 창조된 모습으로 기쁘고 행복하기를 희망하며,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보살펴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



최선희 유닛 소비녀

어둠속에 감추어진 빛을 드러내어라

2년 수련기가 시작되고 자기 양성 계획 피정을 통하여 찾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라 많은 기관에 문을 두드렸지만, 제가 계속해서 들은 이야기는 '코로나 때문에 정부 방침으로 저희 시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시간은 가는데 내가 찾은 모든 기관들의 문이 다 닫혀버리면서 부르심을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닌지 하는 처음의 혼란스러웠던 시간이 지나고 나니, 하느님께서 새로운 실습지를 마련해주고 계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사도직 실습은 역사의 물건들과 이야기에서 현재의 아파하고 또 회복하고 있는 자연으로,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로 이어져갔습니다.

1차 실습지인 역사 연구실에서 우리 수도회의 역사를 바라보고, 옛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수도회의 영성을 저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내면화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차 실습지인 의정부 관구 본원 생태 사도직에서는 상처 입은 이 지구의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 그 수고로움을 알아주듯이 건강한 먹거리를 내어주는 땅, 사람의 노력을 알아주는 자연의 고마움을 느끼며 노동의 값진 가치와 자연과 친교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1차와 2차 실습지에서 얻은 힘으로 다음 실습지로 마련해주신 곳은 의정부교구 교정사목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여자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인 '꽃마리'였습니다.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은 간단히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소년법 1호 처분을 받은 아이들이 가정의 보호아래 개선되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있을 때, 6개월간 아이들을 보호하며 주거와 학업, 자립을 돕는 공동생활 가정(그룹홈)입니다. 실습지의 문은 열렸지만 소위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만나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말 한마디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걱정이 많이 되는 동시에 설립자 성 신부님이 생각났습니다. 성 신부님께서 많은 신자들을 만나며 그 시대의 아픔을 읽어내셨듯이, 그 아이들을 이해하고 현대의 아픔을 읽어내며 아이들이 더 이상 어둠에 매몰되어 있지 않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와 함께 실습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하루 종일 진행되었던 봉사자 교육을 마치고 숙소로 이동했는데 바로 그날, 1차와 2차 실습지에 쌓은 내적 힘과 수도복이라는 하느님의 방패가 없었다면 바로 도망쳤을 것 같은 3명의 아이들 간의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2개월간의 실습 동안 아이들 간의 불화와 아이들 각자 개인의 혼란 속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긴장과 뜬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다행히도 첫날의 엄청난 사건 속에서

자기들을 먼저 보호하고자 했던 저의 마음을 알아준 2명의 아이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열고 다가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집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받지 못했던 사랑과 관심을 더 받고 싶어 하는 마음에 질투를 하고,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생활 규칙에 있어서, '누구는 지켰다, 누구는 지키지 않았는데 혼나지 않았다'라는 작은 불만이 쌓여서 큰 싸움으로 번져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곳에 오게 된 사연들을 듣게 되면서 일방적으로 가정 밖으로 밀려나면서 자연스럽게 범죄에 노출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약자인 아이들에게 쉽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따로 내보내 살게 하면서도 그 결과로 아이들이 이런 범죄에 노출된 이유를 자신들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 복지 시스템이 많이 변화되고 좋아졌다고 하지만 과거나 현재의 가정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며 이 아픔은 치유되지 않고
 자꾸 훑아 가고 있는데, 사회는 뒤쳐진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둔 채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고
 있는 모습에 하느님의 이들에 대한 연민과
 아픔이 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의 가족들에게 분노하였지만,
 그들도 자신들의 문제와 아픔도 보살피지도
 못하고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에만도
 바쁜 삶의 모습에 안타까웠고, 자신의 아픔을
 제대로 보고 보살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들이지만 아이들을 이해하고
 보살필 수 없는 무기력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의 슬픔이 느껴지면서 아이들이 이곳에서
 6개월 후에 돌아갈 가정이 보다 건강해지는
 변화를 꿈꾸며, 그들이 변화 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이나 지원 등 사회제도가 품어주지 못하는
 이 시대의 부서지고 상처난 백성의 모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 신부님이셨다면 무엇을 하셨을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나는 지금 소비녀로 어떤 것을
 해야 하는 것일까?
 하느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라고
 나를 촉구하고 계신 것인가?
 계속 질문하고 고민하며 저의 한계에

좌절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단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식사와 간식을 준비해주고,
 병원에 같이 가주는 것. 이 세 가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기에, 이것으로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는데 이것이 아이들이 힘을 얻고,
 자신들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닐텐데
 하고 생각하며 무력함에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 메시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다고 저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고 물어보았던 아이의 모습 속에,
 조금씩 아이도 가족들도 노력하고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감동을 받으면서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기만 하고, 다시는 빛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곳에 하느님께서 계속해서
 빛을 비추시고 계셨고, 제각각 그 속도는
 다르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어렵듯이 느끼기
 시작하면서 움직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퇴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고,
 미리 집에 몇 번씩 다녀오면서 자신의 방을
 정리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던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제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찌면 하느님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과 제 힘으로 해보려는
 교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6개월의 시간을 채우고
 아이들은 선물 보따리를 가득 안고
 환한 미소를 머금으며 퇴소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 듯
 어리벉벉하면서도 선물 보따리에
 신이 난 아이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실습을 마치고 돌아와서 6개월의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며, 삼대 서약에 대해
 공부하고, 서약을 준비하면서
 1차와 2차 실습에서의 체험 속에
 내적 힘을 기르지 못했다면,
 3차 실습이 과연 가능했을까?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하느님께서 내가 나의 부르심을
 더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모든 시간을
 준비하셨고 함께하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어둠같이 느껴지는
 생명이 없는 물건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모든 것이 죽어있는 것이 아닌
 하나의 생명으로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셨고, 일방적인 사람들의 착취 속에
 부수어지면서 공생하는 관계가 끊어져 버린
 지구의 아픔 속에서도 그 관계를
 다시 이어가려는 사람들의 노력 속에
 그 노력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생명이

깃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어둠처럼 느껴졌던 죽음에서,
 빛이 되는 생명의 이어짐과 회복,
 그리고 피어남이 사람에게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야 한다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하느님의 부르심에 저는 아직도
 이 세상의 상처 나고 부서진 하느님의
 피조물들에게 한 명의 수도자로서,
 또 한 명의 소비녀로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 낯설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낯설음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저를 통해 어둠을 걷고
 빛을 드러내려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번 실습 체험을 통해 배우고 느끼며,
 늘 변함없이 저를 이끄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빈손을 통해 일하시는 당신께
 온전히 의탁하며, 어둠 속에 감추어진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시길 청합니다.”

소비녀, 그대는 누구입니까?



레티 황 쩌 다니엘 소비녀

“안녕하세요.
성가소비녀회 수련자 쩌 다니엘 소비녀입니다.”
한국에서 5번의 봄을 보내면서 나누었던
인사보다 제가 6개월의 실습 기간 동안 했던
자기소개가 훨씬 더 많았던 것 습니다.
지청원기, 수련기를 보내면서
‘소비녀, 소비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그 말이 단지 어떤 물건의
이름처럼 느껴질 뿐 그 안에 숨어있는
깊은 의미의 무게감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습을 통해 소비녀라는 단어의
무게감을 체험하게 되면서,
‘과연 나에게 소비녀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의 실습은 저에게 소비녀가 어떤 존재인지,
소비녀가 가는 여정, 소비녀의 삶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 양성 계획 피정을 통하여
제가 받은 부르심은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입니다.
자기 양성 계획 피정 후 저의 첫 번째 부르심의
여정으로 저는 용인에 있는
미혼모 시설인 ‘생명의 집’에서 4개월 동안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수도회 수녀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의 다름이 느껴졌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 저에게 성가소비녀회의 정신과
영성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
참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 시설 안에서는

모든 미혼모를 ‘언니’라고 부릅니다.
저는 미혼모는 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큰 아픔을 제가 어떻게 위로로
해 줄 수 있을까, 실수로 더 많은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처음에는 쉽게 언니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 공동체 수녀님들의 많은
도움 덕분에 저는 용기를 가지고
언니들에게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날에 제가 언니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아침에 언니들을 만나면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지만,
아무도 반응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긴장해지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고
매일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이 실습기간만큼 제가 제 자신을
넘어서는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의 인사에 대꾸해주지 않더라도
매일 그 인사를 계속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언니들이 사는 공간에
들어갔는데 제가 인사하기도 전에 언니들이
저를 보고 먼저 ‘수녀님~안녕하세요’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언니들의
모습에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보다 이제 언니들이 조금씩 저를 받아들여주고
있다는 생각에 기뻐했습니다.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고 느꼈을 즈음,
제가 계획했던 대로 언니들에게 다가가서
언니들의 상처와 아픔을 알아가며
함께 공감해주는 작업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다르게 그런 말을
꺼내기조차 많이 조심스러워서 고민을 하다가,
아픈 과거를 공감해주고 치유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치유해주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보면
저만의 욕심이 아닌가 하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수련장 수녀님께서 존재 사도직에 대해서
설명해주신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존재함으로써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언니들에게 어떤 대단한 것을 해 줄 수는 없지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언니들에게 충분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비녀는 사람들 사이에 그러한 ‘있는 존재’가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첫 실습을 통해 소비녀의 정체성에 대해
의식이 더 많이 인식하게 되고 깨달아가며
저는 2차 실습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저를 받아줄 곳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이 소중한 시간들을 허락해주시면서도
이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빼앗아 가신 하느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답답한 현실 속에 저에게 선물처럼 다가온 손님은 다름아닌 초창기 소비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난해서 좁은 방에서 모여 살고,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프었으나 자신보다 더 가난한 이들을 찾아가는 수녀님들의 발길이 정말 아름답고 감탄스러웠습니다.

제1호 베트남 소비녀라는 의식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초창기 수녀님들의 정신을 닮고 싶고 수녀님들의 발자취를 닮아가고 싶은 마음과 열정이 마음안에 가득했습니다. 수련장 수녀님의 도움을 받고 기도한 후에 2차 실습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 서울 이주여성 폭력센터와 서울 마고네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공부방에서 봉사하고, 시간이 날 때에 한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 자매 집 두 곳과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을 방문하였습니다. 7·8월의 뜨거운 여름 속에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다녔을 때, 몸에 땀이 뻘뻘 흘렸지만 마음은 기쁨으로 벅차 올랐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기 전에 설레었던 마음, 그들과 함께였을 때 행복했던 마음, 그들을 생각할 때 기쁨이 가득한 마음이

저에게 소비녀의 삶에 대한 새로운 체험들을 하게 하였습니다.

돌아보면서, 저희의 실습은 제17차 수도회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수도회 직속분원에서 실습하지 않아서 실습 중에 총회에 대해 많이 공부하거나 숙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습 기간동안 바라보고 체험했던 가난, 인간의 이기심과 사회의 불의로 인해 상처받고 아파하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기후위기 앞에서 울부 짖고 허물어져 가는 자연을 통하여 총회의 여정에 함께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실습 기간이지만 저에게 꼭 필요한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다시 감사를 드리며 이 기쁨을 수녀님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소비녀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각기 다른 답을 가지고 있었지만 각자가 정의한 답을 삶에서 드러내고자 할 때 결국 나는 내가, 네가 그리고 우리가 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비녀, 그대는 나이고, 너이고, 우리이다.”

BA LỜI KHẨN

Nữ tỳ Đanien

Mới ngày nào còn loay hoay chuẩn bị hành lý sang Hàn Quốc mà giờ đây cuộc sống bên Hàn đã tròn 5 năm. 5 năm đối với con như một cơn mơ, nhiều khi nghĩ lại con không biết mình đã trải qua khoảng thời gian đó như thế nào nữa. Ngày đầu sang Hàn Quốc cùng với nỗi sợ hãi vì lạ lẫm, sự da diết nhớ gia đình khiến con ngập ngừng bước chân. Nhưng nhờ ân sủng của Chúa cùng sự đồng hành của các sơ trong nhà dòng bước chân con trở nên nhẹ nhõm và lòng con trở nên thanh thản hơn rất nhiều.

Từng bước từng bước chậm rãi nhưng đây nghị lực Chúa đã dắt con đến gần Ngài hơn. Để giờ đây con có thể chuẩn bị tuyên bố lời khấn hứa sống vì Ngài. Chúa đã gọi con và đồng hành cùng con bằng tình yêu Ngài. Bây giờ khi đến thời đến điểm Ngài sai con đi loan truyền tình yêu đó chỉ bằng ba lời khấn khiết tịnh, khó nghèo và vâng phục.

Ba lời khấn này không đơn giản chỉ là sống độc thân, sống không cần tiền bạc hoặc chỉ biết nghe theo mệnh lệnh người sai khiến, mà theo một nghĩa rộng đời sống khiết tịnh đòi hỏi con chỉ biết sống đời mình cho Chúa, yêu tất cả mọi tạo vật bằng tình Chúa yêu con; đời sống khó nghèo khuyên con sống đời khiêm tốn, giản dị, biết chia sẻ những gì mình có cho tha nhân cũng như dám đứng lên đòi lại quyền lợi cho người bị ức hiếp; và cuối cùng đời sống vâng phục hướng dẫn con biết lắng nghe lời Chúa thông qua anh chị em sống chung quanh mình.

Để sống ba lời khấn này con biết mình phải từ bỏ mọi thứ nhưng con cũng biết rằng khi con từ bỏ mọi sự con nhận lại được Chúa là Đấng Toàn Năng. Chúa không làm khi Ngài gọi con và con chắc là mình không làm khi hiến mọi sự cho Chúa. Tất cả mọi người đều có phúc nhận được ơn gọi của Chúa nhưng ai dám đáp lời gọi ấy thì có phúc hơn.

Để có được con như ngày hôm nay là nhờ ơn Chúa, sự nuôi dưỡng từ gia đình, và lời cầu nguyện của tất cả những người yêu mến con. Con mong Chúa tuôn đổ hồng ân Ngài trên mọi người và gìn giữ mọi người luôn bình an trong tay Chúa.

Tạ ơn Chúa vì tất cả Ngài dành cho con



응웬 티 홍 머 마리요나 소비녀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

저는 자기양성계획 피정을 하면서 1차 실습은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로 직접 노동을 체험하며, 외국인들과 어려움의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을 계획하였고, 2차 실습은 나환자촌에서 나환자들의 상처를 위로해주고, 기쁨을 주는 시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공장이 아닌 도창동 포도밭 공동체로 변경하여 노동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1차 실습으로 도창동 포도밭 공동체에 가서 노동을 하는 것이 제에게는 무척 힘든 결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논농사를 하시는데, 많은 고생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란 저는 '나는 부모님처럼 고생하면서 농사짓지 않을 거야' 하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성인이 되면 육체노동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포도밭에서 포도나무를 돌보면서 하느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포도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면 기쁘고, 병들고 시든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느님께서도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 건강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실 때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매일 땀을 흘리며 땅을 일구는 시간을 통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고, 노동의 가치와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을 배우며 하느님의 창조사업의 신비와 그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수녀님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많이 배울 수 있었는데, 그동안 계속 사랑받는 존재였고, 수녀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에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이고, 무언가 빠진 것처럼 허전함을 느낄 때였습니다. 실습지 공동체의 어느 수녀님께서 컨디션이 좋지 않으신 데도, 저녁시간까지 일을 하신 후에 많이 편찮으셔서 저녁 식사도 거르시고, 쉬시기만 하셨는데, 밤 조배 시간 내내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 수녀님에 대한 많은 걱정과 불안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고, 그 수녀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제가 하는 이 행동은 누군가에게 칭찬과 감사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수녀님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 수녀님께서 이 약을 드시고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아플 때 언니 오빠들이 절 챙겨주었던 것처럼 감기약과 쌍화탕을 데워서 수녀님께 가져다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성당에 앉아 다시 기도하는 내내 제 안에 행복이 가득하게 채워졌음을 알 수 있었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것보다 작은 것이지만 사랑을 나누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2차 실습 또한 코로나 사태로 나환자촌이 아닌, 수련장 수녀님과 의논하며 어렵게 찾은 곳인 가정 폭력을 당한 이주 여성들을 보호하는 센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센터에 분들을 모두 '언니'라고 부르는데,

처음에 센터에 가게 되었을 때는 그 언니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겠다는 자기 양성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언니들이 받았던 상처가 너무나도 커서 마음을 여는 것이 어려웠고, 여러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문화의 차이와 언어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자주 오해가 생겨서 처음부터 많이 좌절하면서 실습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이 어려움을 수련장 수녀님과 나누면서, 하느님께서 저에게 함께 해보자고 초대하고 계심을 느끼며 다시 해보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의 출근길에, 하느님께 인내심을 많이 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나고 나니 아이들과 친해진 제 모습을 보고 엄마들이 마음을 열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열어 준 엄마들이 말을 걸어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 엄마들의 아픔을 위로해줄 수 있었습니다. 아픔을 나누고, 위로해주면서 지금 이 순간 저를 통해 상처 입은 엄마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눈높이를 아이들에게 맞추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아이들의 친구가 되면서, 어느새 저를 내려놓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보내면서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아이들이 등교를 할 수 없게 되면서 하루 종일 센터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엄마는 센터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느라고, 아이들과 놀아줄 수가 없었고 지루함에 몸부림치는 아이들에게 저는 매일 신나게 놀아주는 새로운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휴일에 놀아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아이들이 '수녀님이 내일 오지 않으면, 우리랑 놀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슬프단 말이야!'라며, 제 가방과 지갑을 감추어버리는 생각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내일 올게!' 하고, 가방과 지갑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돌아와서 울면서 제 물건들을 감추었던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 하면서, 예수님께 '도대체 저에게 무엇을 하라는 말씀이예요.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도대체 더 무엇을 하란 말이세요' 하고 따졌습니다. 그런 저의 말에 예수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은 '난 네가 많이 필요하단다'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이들에게 더 많이 못해주어 속상한 마음보다,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이것을 해 달라, 저것을 해 달라 하면서, 바라기만 하고 제가 예수님께서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전혀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서 아이들을 통해 제가 얼마나 필요하고,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지 알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해주는 모든 것이 크고, 귀한 것이 아니어도 예수님께는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차와 2차에 걸친 자기 양성 계획에 따른 사도직 실습을 통해 하느님께서 나만을 위한 시간이 아닌,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손수 마련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함을 알게 해주시고, 누군가에게 내어준 사랑 이상으로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느님께 더욱 감사드리는 시간이었으며, 또, 저를 사랑으로 함께 해주는 동창들 그리고 모든 수도 공동체에 감사드립니다.

Những lúc con cô độc chỉ có mình Ngài thôi

Nữ tỳ MariGiona - Khóa 79

Con xin chào quý sơ và tất cả chị em. Nguyên xin Thiên Chúa luôn đổ tràn hồng ân và ban phúc lành xuống trên các sơ và tất cả chị em.

Những tháng thực tập ở bên ngoài nhà dòng, con đã trải nghiệm được nhiều bài học vô cùng quý giá, cùng với những thử thách khó khăn khôn lường và mà nó khiến con phải chia sẻ cùng với chị em sau đây.

Trải nghiệm đầu tiên mà khiến con muốn chia sẻ với chị em sau đây là, lắng nghe được tiếng Chúa thông qua việc thinh lặng của tâm hồn. Con luôn nghĩ rằng chỉ nghe được tiếng Chúa thông qua những lời chia sẻ và những cuộc nói chuyện vui vẻ của chị em mà thôi. Đối với con nếu sống mà không có người để chia sẻ hay nói chuyện thì thật là cô đơn và chán nản. Nhưng sau lần thực tập ở vườn nho nhà Dòng, chính Chúa đã chỉ dạy cho con rằng đối với người tu sĩ thì những suy nghĩ ấy thật là không đúng. Trong một lần con đi dạo chung quanh vườn, với một tâm hồn cô đơn và buồn tủi vì không nói chuyện được với ai, nhưng càng đi thì bỗng nhiên con lại nghe thấy được những tiếng chim hót như những thiên thần đang hợp xướng chúc tụng Thiên Chúa, con lại nghe được cả những tiếng của những cành cây đung đưa cọ sát nhau, như những tiếng đàn đang vang rộn ràng như đón chào một ai đó, nhưng không được bao lâu thì những âm thanh ấy lại biến mất, chỉ để lại những tiếng gió lướt qua mà thôi. Ôi! Nhưng thật không thể tin được rằng, trong những tiếng gió se lạnh kia thì con lại nghe được tiếng Chúa đang gọi con rằng: "Con đang tìm ai?", một tiếng gọi mà từ trước giờ con chưa từng được nghe thấy. Và bây giờ con đã biết được rằng, chính những lúc mà ta cảm thấy cô đơn và thiếu vắng, thì chính lúc ấy Chúa ở bên cạnh con và đang muốn nói chuyện với con. Ngài không ở trong những nơi ồn ào và những nơi náo nhiệt mà Ngài chỉ ở những nơi cô tịch mà thôi. Nếu con muốn nghe được tiếng Ngài thì con phải biết thinh lặng, không chỉ thinh lặng ở môi, ở mắt, ở tai mà ở trong tâm hồn nữa, vì Ngài không ở đâu xa mà ở trong tâm hồn con. Vậy mà từ trước giờ con không nhận ra rằng, Ngài không bao giờ bỏ con, mà ngược lại Ngài luôn nói chuyện với con mỗi ngày, thông qua anh chị em, và mọi vật xung quanh con. Và quan trọng nhất rằng con phải luôn biết gắn bó và ao ước được gặp Ngài với một tâm hồn đơn sơ và khó nghèo.

고유함과 다양성을 선물로 여기는 공동체..

우리는 교회 내 일치를 강화해 달라고 하느님께 청합니다.

교회 내 일치는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서로 화해하는 다양성으로 풍성해집니다. 실제로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1코린12,13)

이 몸 안에서 각 지체는 저마다 고유한 공헌을 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말한 대로, “귀는 눈을 통하여 보고, 눈은 귀를 통하여 듣습니다.” 다양한 그리스도교 교파 간 만남의 여정을 계속 증언해 나가는 것도 시급합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세계화 과정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위한 예언자적 영적 기여가 여전히 부족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온전한 친교를 향한 여정에서도 이미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함께 증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류를 위하여 함께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모든 형제들> 280항

입회식 · 84회

타이 티 폼 마리아(마리아 고레띠, 베트남) 자매의 입회식이 2021년 3월 11일에 있었습니다. 다른 문화와 언어 속에서도 잘 적응하여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입회식 · 83회

한정아 효주아녜스 자매가 2021년 4월 9일 입회식을 하였습니다. 오롯이 하느님을 따를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원식 · 82회

도 티 쭈언 다오 안나, 쩐 티 홍 마리아 자매가
2020년 11월 1일 면학기, 지원기를 마치고 청원자가 되었습니다.



착복식 · 80회

닌 트느 화 마르틴, 응웬 티 투 쩐 파우스티나 소비녀가
2021년 2월 2일 착복식을 통하여 수련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첫서약 · 79회

홍유리 파라, 최선희 유딧, 레 티 황 쥘 다니엘, 응웬 티 흥 머 마리오나 소비녀가
2021년 2월 2일 하느님께 처음으로 서약을 하였습니다.



은경축 · 54회

이정순 다비드, 구희선 가브리엘, 임 수 폴린, 정용순 플로리아노, 손성현 다니엘라,
임미정 다태오, 이정희 프란츠, 원혜경 귀임마리아, 이용순 돈보스코, 김영미 야곱,
박중은 세영알렉시오, 배찬숙 존폴, 조선형 나자레나, 이흥영 마리베로니카, 최난주 토마시아,
노영래 그리스도폴, 김정열 리디아 소비녀의 은빛 길, 반짝이는 은빛의 강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경축 · 27회

2020년 5월 7일 신오순 유리아, 이해자 잔다크, 조춘희 요셉 소비녀의
50년의 봉헌의 삶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랫동안 봉헌으로 금경축을 맞은 수녀님들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금경축 · 28회

2021년 5월 8일 박정자 레미지오, 이정자 말딩, 김청옥 루수, 한하자 세레나, 박춘자 엘리자,
김용란 치쁘리아노, 조정숙 오티리아, 김경애 베다, 김광자 헤드워, 손팔금 바울라,
김옥제 안드레아, 김순진 마리엠타 소비녀의 50년의 봉헌의 삶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랫동안 봉헌으로 금경축을 맞은 수녀님들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JMJ



2021. 4. 18. JMJ 김해 모임 첫서약



2021. 5. 21. JMJ 서울 모임 첫서약 입학식



2021. 5. 21. JMJ 인천 모임 첫서약 입학식

선종하신 소비녀들



박완기 라파엘 소비녀

1941. 2. 5. ~ 2020. 5. 21.

—

1964년 5월 4일에 입회하셔서 수도생활 57년을 일기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종하셨습니다.



선종하신 소비녀들



김현연 엔젤 소비녀
1950. 4. 10. ~ 2020. 8. 15.
—
1970년 5월 9일
입회하셔서 51년의
수도생활을 마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윤옥 원선시오 소비녀
1938. 6. 10. ~ 2021. 4. 26.
—
1958년 3월 19일에
입회하셔서 수도생활
64년의 일기로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천상 성가정에 드셨습니다.

2021년 성소자 피정



코로나19로 모임을 대체한
상시
개인 초막 피정 및 연담

문의 : 고 나연베로니카 수녀
H. 010-2839-4080